

2026 미중 워싱턴 정상회담 종합 보고서

김경진 변호사

목차

1장

워싱턴의 파격적 의전과 탑다운 외교의 서막

앤드루스 기지 활주로 영접부터 뉴욕 8시간 사전 협상까지, 워싱턴 국빈 방문의 의전과 셈법

- 1.1 11년 만의 국빈 방문과 앤드루스 기지의 활주로 영접
- 1.2 479명의 의장대와 B-2·F-22 편대 비행
- 1.3 영부인 외교와 건국 250주년
- 1.4 뉴욕 JP모건 본사의 8시간 협상
- 1.5 AI 대화 채널과 사고 통보 장치
- 1.6 탑다운 외교의 셈법과 서로 다른 시간표
- 참고 자료

2장

무역 휴전 연장과 5B(보잉·대두·소고기·무역위·투자위)의 딜

부산 무역 휴전의 11월 10일 시한과 보잉·대두·소고기, 무역위원회·투자위원회로 짜인 5B 거래

- 2.1 부산 무역 휴전의 연장과 11월 10일의 시한
- 2.2 트럼프의 5B 카드 ①: 보잉 200대와 월가의 실망
- 2.3 트럼프의 5B 카드 ②: 대두 2,500만 톤과 소고기 등록의 깜빡임
- 2.4 트럼프의 5B 카드 ③: 무역위원회·투자위원회와 관리형 무역
- 2.5 5B와 3T의 동상이몽, 그리고 한국의 셈법
- 참고문헌

3장

희토류 무기화와 12개월의 시한폭탄

2025년 4월 수출 허가제에서 12개월 유예까지, 희토류가 미국 방산·제조업에 걸어 둔 시한

- 3.1 시카고 공장의 정지와 베이징의 허가제: 2025년 4월 4일 공고
- 3.2 골든 스크류와 0.1% 규정: 무기 한 대에 들어가는 희토류
- 3.3 관세의 부메랑과 마인 투 마그네틱의 시차
- 3.4 12개월 유예의 별표: 멈춘 것과 남은 것
- 3.5 한국 산업의 좌표: 시한부 숨통과 동시 관리의 부담
- 참고문헌

4장

AI 대화와 기술 패권: 딥시크 충격과 반도체 봉쇄

미중 AI 대화 채널, 딥시크 충격, H200 조건부 승인과 화웨이 어센드로 갈라지는 두 AI 생태계

- 4.1 베센트와 허리핑의 뉴욕 회담, 그리고 미중 AI 대화
- 4.2 딥시크의 600만 달러 충격과 결핍이 낳은 발명
- 4.3 젠슨 황의 알래스카 탑승과 H200 조건부 승인
- 4.4 중난하이의 빗장과 화웨이 어센드 육성
- 4.5 증류 논란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의 조사
- 4.6 두 개의 AI 생태계와 한국 반도체의 선택
- 참고문헌

5장

대만 해협과 140억 달러 무기 판매: 시진핑의 레드라인

백악관과 베이징의 두 발표문, 140억 달러 무기 패키지, '지지하지 않는다'와 '반대한다'의 차이

5.1 두 장의 발표문: 백악관의 침묵과 베이징의 경고

5.2 140억 달러 패키지와 레이건의 6항 보증

5.3 서명하지 않은 이유: 비어 가는 무기고, 깎인 예산, 옮겨 가는 반도체

5.4 동사 하나의 싸움: '지지하지 않는다'와 '반대한다'

5.5 한국이 읽어야 할 신호: 주한미군, 북한, 실용외교의 한계

5.6 워싱턴 회담과 2027년의 시계

참고자료

6장

중동 호르무즈 해협과 지정학적 대거래

호르무즈 봉쇄와 배럴당 118달러 유가, 중국의 선택적 통행과 북한 변수가 얹힌 대거래

6.1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배럴당 118달러까지 오른 유가와 미국의 곤경

6.2 중국의 '선택적 통행'과 이란 석유 생명선: 위안화후호와 산둥 티팟 정유사

6.3 백악관 발표문과 베이징 발표문의 비대칭: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한다"와 침묵

6.4 북한 핵 변수와 미중 대거래: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와 중국의 '교량' 역할

6.5 한국 경제와 안보의 직격탄: 에너지 '이중 의존'과 실용 외교의 시험대

참고문헌

7장

샌드위치에 선 한국 경제: K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의 외교적 셈법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K배터리, 정유·석유화학이 마주한 12개월 유예와 실용 외교의 시험대

7.1 12개월 유예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복잡한 계산

7.2 희토류 12개월 유예와 K배터리 공급망

7.3 투자위원회와 CATL·BYD의 북미 진출 가능성

7.4 에너지 안보의 이중 의존과 정유·석유화학의 부담

7.5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와 사안별 연대의 시험대

7.6 12개월의 시한과 한국 산업의 골든타임

참고문헌

8장

G2의 미래: 공존의 가드레일인가, 잠정적 휴전인가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이름표와 두 정치 달력, 2027년의 절벽 앞에 선 한국의 선택

8.1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이름표

8.2 두 개의 정치 달력

8.3 기술의 평행 우주

8.4 대만과 희토류: 봉합되지 않은 두 단층

8.5 동맹과 글로벌 사우스의 시선

8.6 2027년의 절벽과 한국의 선택

참고문헌

제1장 워싱턴의 파격적 의전과 탑다운 외교의 서막

1.1 11년 만의 국민 방문과 앤드루스 기지의 활주로 영접

2026년 9월 23일 오후 4시 무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용기가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내린다. 이 기지는 워싱턴 D.C. 동남쪽 메릴랜드주에 있는 공군 기지다. 활주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맞는다.

시 주석이 국민 자격으로 백악관을 찾는 것은 2015년 9월 이후 11년 만이다. 국민 방문(國賓訪問)은 한 나라가 외국 정상에게 베푸는 가장 높은 등급의 공식 방문을 말한다. 이번 방문은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국민 방문에 대한 답방이다. 트럼프는 5월 14일 인민대회당 만찬에서 시 주석 부부를 9월 24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두 사람은 2025년 10월 30일 부산에서 트럼프 2기 들어 처음 만났고, 이번이 세 번째 회담이다. 중국 외교부 귀자쿤 대변인은 반년 안에 두 정상이 서로 오간 일을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일정은 사흘에 걸쳐 짜여 있다. 23일에는 앤드루스 기지에서 도착 환영 행사를 연다. 24일 오전에는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로즈가든 사열을 마친 뒤 정상회담에 들어간다. 같은 날 저녁에는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국민 만찬이 열린다. 25일 오전에는 두 정상 부부가 레드룸에서 차를 마시고 함께 국가기록원을 둘러본다. 시 주석은 이 일정을 끝으로 앤드루스 기지로 돌아가 귀국길에 오른다.

미국 대통령은 보통 외국 정상을 공항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맞는다. 공항에는 국무부 의전장이 나가고, 대통령은 백악관 현관에서 손님을 기다린다. 이 관례를 깬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1959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냉전이 한창일 때 앤드루스 기지에서 소련의 흐루쇼프 총리를 맞았다.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기지에서 교황을 맞았다. 교황을 빼고 보면 흐루쇼프 이후 67년 만의 일이다. BBC 중문판은 이번 대우를 교황과 흐루쇼프에 견줄 만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트럼프가 2기 들어 앤드루스 기지에서 외국 정상을 직접 맞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25년 8월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을 활주로에서 맞은 적은 있다. 그러나 그때는 알래스카의 군 기지 자체가 회담장이었다.

5월 베이징과 견주어 보면 이번 영접은 받은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예우다. 5월 13일 에어포스원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렸을 때 시 주석은 활주로에 나오지 않았다. 한정 국가부주석이 대신 나와 트럼프를 맞았다. 공항에는 의장대와 군악대, 국기를 흔드는

청소년 300여 명이 나와 있었다. 시 주석의 공식 환영은 다음 날 인민대회당 앞 광장에서 열렸다.

트럼프가 한 걸음 더 나간 까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협상을 앞둔 호의 표시다. 풀리티코에 따르면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영접을 시 주석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외교 의전(儀典)에서 대등한 대우를 중시한다. 시 주석 역시 미국 대통령과 같은 급으로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판단이다. 멜라니아 여사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두 정상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땅에 오는 손님이니 최대한 존중으로 맞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하나는 국내 정치다. 미국은 11월 3일 중간선거를 치른다. 트럼프에게는 중국과의 관계를 자신이 잘 다루고 있다는 장면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사우스론에 새 화강암 헬기 착륙장을 깔고, 이번 방문에 맞춰 공사를 서둘렀다. 4억 달러짜리 백악관 연회장이 제때 끝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의전 하나하나가 유권자에게 보여 줄 무대 장치이기도 한 셈이다.

1.2 479명의 의장대와 B-2·F-22 편대 비행

24일 오전 백악관 공식 환영식의 세부 계획은 퍼스트레이디 사무실이 21일 발표했다. 환영식은 사우스론과 스테이트 플로어, 로즈가든에 걸쳐 열린다. 미군의 모든 군종에서 뽑힌 479명이 행사에 참가한다. 시 주석 부부가 들어오는 남쪽 진입로에는 전군 의장대가 길게 늘어선다. 진입로 끝에는 미국과 중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다. 육군 전령 나팔대는 남쪽 현관에서 팡파르를 울리며 손님을 맞는다.

이어 해병대 무음 정밀 제식 소대와 합동군 의장대가 대통령 경례 의식을 펼친다. 로즈가든 사열 때는 전령 나팔대가 웨스트 콜로네이드와 오벌 콜로네이드 지붕에 늘어선다. 콜로네이드는 백악관 본관과 집무동을 잇는 기둥 복도를 말한다. 육군 올드가드 고적대와 해병대 드럼 뷰글 군악대도 시범을 보인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각각 환영사와 답사를 한다.

환영식의 마지막 순서는 공중 분열 비행이다.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1대와 F-22 랩터 전투기 4대가 백악관 상공을 지나간다. 백악관 일대는 평소 비행이 금지된 구역이어서 이런 비행은 드물다.

편대 구성에는 계산이 담겨 있다. B-2는 2025년 6월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때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기종이다. 당시 B-2는 18시간을 날아가 지하 시설을 뚫는 대형 폭탄을 떨어뜨렸다. 트럼프는 2025년 8월 알래스카 회담 때도 푸틴 대통령 머리 위로 B-2를 띄웠다. 국내 언론은 이번 비행을 말없이 군사력을 보여 주는 장치로 읽는 분석을 전했다. 손님을 높이는 형식을 갖추면서 미국의 힘을 중국 지도부 눈앞에 펼쳐 보이는 방식이다.

저녁 국빈 만찬은 이스트룸에서 열리고, 두 정상이 만찬 첫머리에 연설한다. 초청 명단에는 미국 기술 기업과 금융사 대표들이 대거 올랐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명단에 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오픈AI의 샘 올트먼도 초청을 받았다.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델의 마이클 델도 참석한다.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와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 애플 CEO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이 된 팀 쿡도 온다. 트럼프는 수천 명이 오고 싶어 하는 자리라 친한 친구들에게도 거절해야 했다고 말했다.

중국 쪽 사정은 달랐다. 로이터는 9월 초까지만 해도 시 주석이 대규모 기업인 사절단과 함께 온다고 보도했다. 후보로는 비야디(BYD), 샤오미, CATL, 귀쉴안, 하이신, 완샹, 중국은행, 중량그룹이 올랐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로이터는 23일 시 주석이 기업인 사절단 없이 온다고 전했다.

5월 베이징 방문 때 트럼프는 미국 기업인들을 데리고 갔다. 젠슨 황, 팀 쿡,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등이 5월 14일 리창 총리와 따로 만났다. 이번에는 그 구도가 한쪽에서만 나타난다. 중국 정부는 사절단을 빼기로 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 기업과 거래 성과를 연출하기보다 관세 휴전 연장과 대만 문제 같은 본 협상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상업 성과를 크게 내세우려는 트럼프와, 그런 그림에 거리를 두는 시 주석의 시각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1.3 영부인 외교와 건국 250주년

두 정상이 회담하는 동안 두 부인은 따로 일정을 소화한다. 멜라니아 여사는 5월 베이징 방문에 동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평리위안 여사와 만나는 것은 2017년 11월 트럼프 1기 베이징 방문 이후 9년 만이다. 멜라니아 여사는 공개 행사에 잘 나서지 않아 미국 언론에서 은둔형 영부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 방문 일정은 처음부터 퍼스트레이디 사무실 이름으로 발표됐다. 멜라니아 여사가 이번 행사를 직접 챙기고 있다는 표시로 볼 수 있다.

환영식이 끝나면 두 사람은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을 함께 찾는다. 백악관은 여러 세기에 걸친 예술 작품과 미중 문화 교류의 흔적을 둘러본다고 설명했다. 평리위안 여사는 인민해방군 가무단 출신 성악가로 중국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 세계보건기구(WHO) 친선대사로서 결핵과 에이즈 예방 활동도 오래 해 왔다. 정상 간 협상이 딱딱한 의제로 채워지는 동안 영부인 일정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25일 오전 두 부부는 백악관 남쪽 현관에서 만나 레드룸으로 옮겨 차를 마신다. 레드룸은 스테이트 플로어에 있는 작은 응접실로, 사적인 대화에 알맞은 공간이다. 차담이 끝나면 네 사람은 함께 워싱턴의 국가기록원으로 간다. 이곳에는 독립선언서와 헌법, 권리장전 원본이 보관돼 있다.

2026년은 미국이 1776년 독립을 선언한 지 250년이 되는 해다. 백악관은 두 나라 관계를 보여 주는 역사 기록물을 함께 본다고 밝혔다. 어떤 문서를 꺼내 놓을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에는 1844년 두 나라가 처음 맺은 왕샤조약 관련 문서가 있다. 1972년 닉슨 방중과 상하이 공동성명, 1979년 수교에 관한 기록도 남아 있다. 트럼프에게 이 방문은 건국 250주년을 외국 정상 앞에서 보여 주는 자리다. 시 주석에게는 두 나라가 오래 교류해 온 역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시 주석 부부는 국가기록원 방문을 마치고 앤드루스 기지로 이동해 귀국한다.

1.4 뉴욕 JP모건 본사의 8시간 협상

워싱턴의 화려한 의전 뒤에는 나흘 전 뉴욕에서 열린 사전 협상이 있다. 9월 20일 일요일, 두 나라 경제 협상팀이 맨해튼의 JP모건 체이스 본사에 모였다.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왔다.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협상 대표가 자리를 함께했다. 리청강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국제무역담판대표로 직함이 올라갔다. 협상은 8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 회의의 목표는 정상회담에서 내놓을 성과물을 미리 다듬는 일이었다. 정상회담이 틀어지지 않도록 미리 안전판을 까는 뜻도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양쪽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베센트 장관은 회의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중 관계의 안정이 이번 협상의 초점이라고 했다. 리청강 대표도 분위기를 좋게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솔직하고 깊이 있고 건설적인 논의였다고 전했다.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의제는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는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의 가동이다. 무역위원회는 5월 베이징 회담에서 합의한 협의 기구다. 두 나라가 전략 물자가 아닌 상품을 골라 관세를 낮추는 절차를 맡는다. 그리어 대표는 이 기구가 실제 가동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국 쪽 대상은 소비재와 기술 수준이 낮은 공산품이다. 미국 쪽 대상은 에너지, 농산물, 의료기기다. 시장에서는 관세를 낮출 중국산 제품 규모를 최대 300억 달러로 본다. 5월에 함께 발표한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적다.

둘째는 관세 휴전의 연장이다. 2025년 10월 부산 회담에서 두 나라는 관세 전쟁을 1년 동안 멈추기로 했다. 한때 세 자릿수까지 올랐던 미국의 대중 관세는 이 합의로 약 20% 선에서 묶였다. 이 휴전은 2026년 11월 10일 끝난다. 뉴욕 협상에서는 연장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미국은 3개월에서 6개월 연장을 제안했다. 중국은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장하자고 요구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11월 10일까지 시간이 있어 이날 꼭 연장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연장 기간을 짧게 잡아 협상 지렛대를 남겨 두려 한다.

셋째는 희토류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전투기,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다. 미국은 중국이 부산에서 한 희토류 공급 약속을 3분의 2 정도만 지키고 있다고 본다. 미국 관계자는 이것이 행정 체계의 오류인지 의도적 감축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뉴욕

협상에서도 희토류 문제는 진전이 없었다. 미국 관리들은 희토류 공급을 늘리는 대가로 수출 통제를 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넷째는 5월에 나온 구매 약속이다. 중국은 베이징 회담에서 미국산 농산물을 해마다 170억 달러어치 더 사기로 했다. 보잉 여객기 200대 이상을 사겠다는 약속도 했다. 베센트와 그리어는 이 약속의 이행 상황에 대해 새로운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뉴욕 협상은 판을 깨지 않으면서 정상회담으로 공을 넘기는 데 그쳤다. 큰 합의는 정상 몫으로 남기고, 실무진은 틀만 맞춰 둔 것이다.

1.5 AI 대화 채널과 사고 통보 장치

뉴욕 협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나왔다. 베센트 장관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미중 AI 대화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대화 안에 사고 통보 장치를 두자고 제안했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만한 AI 사고가 생기면 서로 알려 주자는 내용이다. 베센트는 이를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위협을 다루는 장치라고 표현했다.

베센트는 AI 1위와 2위 국가 사이에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경을 넘는 다른 활동처럼, 서로 불투명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트럼프와 시 주석은 5월 베이징에서도 AI 협의를 논의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공식 기구로 이어지지 않았다. 베센트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두 나라가 두 달쯤 뒤 다시 만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의 날짜와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통보 장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두 나라가 가장 치열하게 부딪치는 기술 경쟁은 그대로 두고, 사고가 전쟁으로 번지는 길만 막자는 구상이다. 베센트는 중국의 AI 개발 자체를 위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공동의 위협이라는 표현은 AI가 두 나라 모두에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배경에는 워싱턴의 달라진 분위기가 있다. 최근 여러 연구자가 AI가 인류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AI 업계 안에서도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만찬에 초청된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준비가 안 된 기술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민주당 간사인 로 카나 의원은 정상회담에서 AI 안전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쪽 사정도 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공개 모델을 바탕으로 한 증류 기법으로 성능 격차를 줄여 왔다. 증류는 큰 모델의 답을 작은 모델에 학습시켜 비슷한 성능을 내게 하는 방법이다. 중국 정부는 유엔 중심의 다자 협의와 오픈소스 확산을 앞세워 왔다.

미중 AI 대화에는 앞선 흐름이 있다. 2023년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AI 정부 간 대화에 합의했다. 첫 회의는 2024년 5월 제네바에서 열렸다. 같은 해 11월 페루 리마 회담에서는 핵무기 사용 결정을 AI가 아닌 사람이 내려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트럼프 2기 들어 이 흐름은 한동안 끊겼다. 이번 통보 장치 제안은

끊겼던 대화를 트럼프 방식으로 다시 잇는 시도다.

냉전 시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뒤 미국과 소련은 1963년 백악관과 크렘린을 잇는 직통선을 놓았다. 오해가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였다. 이번 AI 통보 장치도 경쟁을 멈추는 장치가 아니라 사고를 관리하는 장치에 가깝다.

1.6 탑다운 외교의 셈법과 서로 다른 시간표

이번 회담은 탑다운 외교의 전형을 보여 준다. 탑다운 외교는 정상이 먼저 큰 방향을 정하고 실무진이 나중에 세부를 채우는 방식이다. 실무 협상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를 정상의 결단으로 넘기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에 포괄적 합의를 노리지 않는다고 미리 밝혔다. 두 나라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이었다.

트럼프의 셈법은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맞춰져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농업 지대 유권자에게는 대두 등 농산물 수출이 중요하다. 보잉 여객기 판매는 제조업 일자리와 연결된다. 관세 휴전 연장은 물가 부담을 덜어 준다. 최근 미국에서는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생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는 일도 유가와 연결된다. 국내 언론은 시 주석이 대만 문제의 대가로 이란 압박 협조를 내비칠 수 있다고 전했다. 활주로 영접과 B-2 편대 비행은 이런 성과를 돋보이게 하는 무대다.

중국의 시간표는 다르다. 중국은 미국 중간선거라는 짧은 시한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휴전 연장 기간을 트럼프 임기 끝까지 늘리자고 요구한다. 희토류 공급과 농산물 구매는 중국이 쥔 협상 카드다. 이 카드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더 세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

시 주석이 가장 앞에 두는 의제는 대만이다. 미국은 5월 베이징 회담 뒤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멈췄다. 사상 최대 규모인 이 패키지에는 미사일, 대드론 무기, 방공 체계가 들어 있다. 트럼프는 이 무기 판매를 두고 아주 좋은 협상 카드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1982년 미중 공동성명을 근거로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푸단대 대만연구센터의 신창 주임은 뉴욕타임스에 대만이 미중 관계를 가장 크게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무기 판매 동결을 이어 가는 것이 중국의 핵심 목표일 수 있다고 봤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과의 무기 구매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의 필요는 서로 맞물려 있다. 트럼프는 선거 전에 숫자와 헤드라인이 필요하다. 시 주석은 대만과 기술 통제에서 시간을 버는 것이 필요하다. 이 거래는 양쪽 모두에게 당장의 이익을 준다. 다만 반도체 통제, 희토류, 대만이라는 구조적 쟁점은 어느 것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드거드 케이건은 정상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때 세 자릿수 관세와 희토류 수출 제한까지 오갔던 지난해를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도 이번 워싱턴 회담은 미중 경쟁을 끝내는 자리라기보다 갈등을 일정 기간 묶어 두는 자리에 가깝다. 활주로 영접과 스텔스 폭격기 비행이 끝난 뒤에도 11월 10일이라는 휴전 만료일은 그대로 남는다.

참고 자료

1.1 관련

1. The White House, "First Lady Melania Trump Releases Details Ahead of His Excellency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Madame Peng Liyuan's Visit to The White House," 2026.9.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6/09/first-lady-melania-trump-releases-details-ahead-of-his-excellency-xi-jinping-president-of-the-peoples-republic-of-china-and-madame-peng-liyuans-visit-to-the-white-house/>
2. AP(ABC News 게재), "China's Xi kicks off state visit to Washington on Wednesday with a rare planeside welcome from Trump," 2026.9.23. <https://abcnews.com/US/wireStory/chinas-xi-kicks-off-state-visit-washington-wednesday-136673852>
3. South China Morning Post, "Rare honour: Trump will greet Xi at Joint Base Andrews, not just White House," 2026.9.18.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367905/rare-honour-trump-will-greet-xi-andrews-not-just-white-house>
4. The Epoch Times, "White House Unveils Official Schedule for Trump–Xi Summit Next Week," 2026.9.19. <https://www.theepochtimes.com/us/white-house-unveils-official-schedule-for-trump-xi-summit-next-week-6090943>
5. Alhurra, "Trump–Xi Summit's Likely Upshot: The Show Must Go On," 2026.9.22. <https://alhurra.com/en/41715>
6. MSN(Politico Playbook 인용), "Trump to greet Xi at airport ahead of US–China summit," 2026.9. <https://www.msn.com/en-us/politics/government/trump-to-greet-xi-at-airport-ahead-of-us-china-summit/ar-AA2cqTVQ>
7. Wikipedia, "2026 state visit by Xi Jinping to the United States"(BBC 중문판 2026.9.19 보도 인용). https://en.wikipedia.org/wiki/2026_state_visit_by_Xi_Jinping_to_the_United_States

1.2 관련

8. ANI, "Presidential salute, aerial flyover, state dinner: First Lady Melania Trump's office outlines full schedule," 2026.9.21. <https://aninews.in/news/world/us/presidential-salute-aerial-flyover-state-dinner-first-lady-melania-trumps-office-outlines-full-schedule-and-honors-for-xi-jinpings-us-visit20260921202028/>
9. The EurAsian Times, "Trump to Fly B-2 Bomber, F-22 Raptors Over White House to Welcome China's President Xi Jinping," 2026.9.22. <https://www.eurasiantimes.com/trump-to-fly-b-2-bomber-f-22-raptors-over-white-house-to-welcome-chinas-president-xi-jinping/>
10. 서울경제(영문판), "U.S. to Fly Stealth Bomber, Fighter Jets Over Xi's State Visit Welcome," 2026.9.22. <https://en.sedaily.com/international/2026/09/22/us-to-fly-stealth-bombers-over-xis-state-visit-welcome>
11. ABC30, "Trump–Xi meeting comes amid tensions on Iran, Taiwan and trade: What to know," 2026.9.23. <https://abc30.com/story/trump-xi-meeting-comes-amid-tensions-iran-taiwan-trade-what-know/19860966/>
12. Reuters(Yahoo 게재), "China's Xi to visit Washington without CEO delegation, sources say," 2026.9.23. <https://www.yahoo.com/news/articles/chinas-xi-visit-washington-without-143350363.html>
13. CNBC, "Here's who we know is going to the Trump–Xi dinner so far," 2026.9.22. <https://www.cnbc.com/2026/09/22/heres-who-we-know-is-going-to-the-trump-xi-dinner-so-far.html>

1.3 관련

14. CNY Central(TNND), "First lady Melania Trump shares details ahead of China's Xi Jinping visit," 2026.9.21. <https://cnycentral.com/news/nation-world/first-lady-melania-trump-shares-details-ahead-china-xi-jinping-visit-peng-liyuan-joint-base-andrews-arrival-ceremony-military-band-music-flyovers-state-dinner-smithsonian-museum-national-archives>
15. AP(Local10 게재), "Trump will be at the airport to greet Xi when China's leader arrives for his US state visit," 2026.9.18. <https://www.local10.com/news/politics/2026/09/18/trump-will-be-at-the-airport-to-greet-xi-when-chinas-leader-arrives-for-his-us-state-visit/>

1.4 관련

16. CNBC, "Bessent calls meeting with China Vice Premier He Lifeng 'successful' ahead of Trump-Xi summit," 2026.9.20. <https://www.cnbc.com/2026/09/20/bessent-he-lifeng-trump-xi-summit.html>
17. Sinocism, "Fifth Plenum date set; Xi's US visit confirmed as negotiators meet in New York," 2026.9.21(Financial Times 보도 인용). <https://sinocism.com/p/fifth-plenum-date-set-xis-us-visit>
18. Bloomberg, "US, China to Keep Talking on Trade Truce Extension, Greer Says," 2026.9.2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9-21/greer-says-us-china-to-continue-talks-on-trade-truce-extension>
19. Al Jazeera, "US proposes AI safety notification mechanism in talks with China," 2026.9.20.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6/9/20/us-china-open-high-level-talks-ahead-of-trump-xi-summit>
20. investingLive, "Low expectations set for Trump-Xi meeting as trade truce set to be extended," 2026.9.21. <https://investinglive.com/news/low-expectations-set-for-trump-xi-meeting-as-trade-truce-set-to-be-extended/>
21. The Detroit News(Reuters), "Bessent proposes US-China AI safety notifications in talks with Chinese vice premier," 2026.9.21. <https://www.detroitnews.com/story/tech/2026/09/21/bessent-proposes-us-china-ai-safety-notifications-talks-chinese-vice-premier/91870614007/>

1.5 관련

22. CNN Business, "Bessent proposes AI safety notifications in talks with China ahead of Xi-Trump meeting," 2026.9.20. <https://edition.cnn.com/2026/09/20/business/us-china-trade-talks-ai-intl-hnk>
23. Forbes, "Bessent Says U.S. And China Discussed AI Dialogue And 'Notification' For Safety Incidents," 2026.9.21. <https://www.forbes.com/sites/siladityaray/2026/09/21/bessent-touts-ai-dialogue-with-china-and-notification-mechanism-for-incidents/>
24. The Hill, "Bessent: US suggesting AI alert system with China ahead of Trump-Xi talks," 2026.9.21. <https://thehill.com/policy/technology/6101437-bessent-proposes-ai-notification-system/>
25. Fox Business, "Trump plans state dinner for Xi Jinping with Altman, Huang and Cook," 2026.9.18. <https://www.foxbusiness.com/markets/tech-power-players-land-seat-table-high-stakes-dinner-trump-xi>

1.6 관련

26. AP(WTOP 게재), "Taiwan is watching closely as Xi and Trump meet and hopes US will keep up its arms sales," 2026.9.23. <https://wtop.com/world/2026/09/taiwan-is-watching-closely-as-xi-and-trump-meet-and-hopes-us-will-keep-up-its-arms-sales/>
27. ANI(뉴욕타임스 보도 인용), "Trump's \$14 billion bargaining chip, Taiwan arms sale looms over Xi summit," 2026.9.21. <https://aninews.in/news/world/us/trump8217s-14-billion-bargaining-chip-taiwan-arms-sale-looms-over-xi-summit-nyt-report20260921181810/>
28. The Washington Post, "U.S. pauses \$14 billion Taiwan arms sale after China summit," 2026.5.23.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6/05/23/us-pauses-14-billion-taiwan-arms-sale-after-china-summit/>
29. 서울경제(영문판), "B-2 Flyover Marks Xi State Visit as Tariff Truce Talks Stall," 2026.9.23. <https://en.sedaily.com/international/2026/09/23/b-2-flyover-marks-xi-state-visit-as-tariff-truce-talks-stall>
30. Sourcing Journal, "What Could Really Come Out of the Xi-Trump Summit?," 2026.9.23. <https://wwd.com/sourcing-journal/trade/china-us-trade-policy-trump-xi-summit-washington-ustr-1239254546/>
31. 김경진, 「2026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연구 자료(beijing-2026-summit-kimkj.pdf), 프로젝트 첨부 자료.

제2장 무역 휴전 연장과 5B(보잉·대두·소고기·무역위·투자위)의 딜

2.1 부산 무역 휴전의 연장과 11월 10일의 시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가장 급한 숙제는 무역 휴전의 만료일이었다. 지금의 미중 통상 질서는 2025년 10월 30일 부산에서 만들어졌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 겨누던 보복 조치를 1년 동안 멈추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20% 안팎에서 묶었다. 중국은 2025년 10월에 내놓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미뤘다. 미국은 계열사 규칙과 중국 관련 선박의 입항 수수료를 함께 멈췄다. 계열사 규칙은 제재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회사까지 묶는 규정이다. 중국은 그 대가로 끊었던 미국산 대두 구매를 다시 시작했다. 이 합의의 효력은 2026년 11월 10일에 끝난다.

올해 2월에는 미국 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는 일이 생겼다. 연방대법원이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다. IEEPA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이유로 경제 조치를 내리게 하는 법이다. 이 판결로 중국에 매기던 펜타닐 관세 10%와 상호 관세 10%가 사라졌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를 다시 쌓았다. 7월 24일부터는 강제노동 조사를 근거로 12.5% 관세를 매겼다. 8월에는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7.5% 관세를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두 관세를 더하면 다시 20%가 된다. 중국은 부산 합의 수준을 넘지 않으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5월에 내비쳤다. 근거 법은 바뀌었지만 미국은 20%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를 다시 짜고 있다.

휴전이 끝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따져 보면 시한의 무게가 보인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되살아나고, 미국의 계열사 규칙도 다시 살아난다. 20% 상한을 지켜 줄 정상 간 약속도 효력을 잃는다. 휴전 뒤에도 희토류는 통제 이전보다 50% 가까이 적게 들어온다는 분석이 있다. 통제가 되살아나면 반도체, 방산, 청정에너지 공급망이 한꺼번에 흔들린다.

교역 규모도 이미 많이 줄어 있었다. 2025년 미중 상품 교역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 2026년 들어서도 7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래도 중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세 번째 교역국이다. 올해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는 7월까지 약 912억 달러였다.

회담 나흘 전인 9월 20일, 양국 협상팀이 뉴욕 맨해튼에서 만났다. 장소는 JP모건 체이스 본사였고, 회의는 8시간 동안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나왔다. 중국에서는 허리핑 부총리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대표가 나왔다. 베센트 장관은 회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중 무역위원회가 실제 가동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인공지능 대화 채널을 만드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하지만 휴전을 얼마나 늘릴지는 정하지 못했다.

기간을 두고 두 나라의 셈법은 서로 달랐다. 그리어 대표는 다음 날 3개월에서 6개월 연장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짧게 끊어 가며 중국의 희토류 약속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계산이었다. 중국은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휴전을 늘리길 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는 1년 안팎에서 만날 것으로 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1년 연장을 기본 시나리오로 잡았다.

두 정상 모두 시장을 흔들 이유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주 뒤인 11월 3일 중간선거를 치러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내년 가을 당대회에서 네 번째 임기를 노린다. 올해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의 첫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협상의 무게는 12개월 연장 쪽으로 기울었다. 1년 연장이 이뤄져도 갈등의 뿌리는 그대로 남는다. 만료일이 2027년 가을로 옮겨 가고, 같은 시한 싸움이 한 번 더 시작될 뿐이다.

2.2 트럼프의 5B 카드 ①: 보잉 200대와 월가의 실망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싶은 성과는 이른바 5B였다. 보잉(Boeing), 대두(Beans), 소고기(Beef)가 앞의 세 B다.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와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가 뒤의 두 B다. 이 틀은 5월 베이징 회담에서 처음 모양을 갖쳤고, 워싱턴 회담이 그 연장선에 있다.

첫 번째 B인 보잉은 숫자로 가장 크게 보이는 카드다. 2017년 트럼프 1기 방중 때 중국은 보잉 여객기 300대 구매에 서명했다. 금액으로는 약 370억 달러 규모였다. 그 뒤 무역전쟁이 시작됐고, 737 맥스가 두 번 추락했고, 코로나19가 왔다. 중국의 대형 신규 주문은 거의 10년 가까이 끊겼다. 그 빈자리는 유럽 에어버스가 채웠다. 올해 7월에도 중국 항공사들은 에어버스 여객기 95대를 주문했다.

5월 베이징 회담을 앞두고 시장의 기대는 컸다. 3월에는 보잉이 500대 규모 계약에 가까워졌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다. 켈리 오트버그 보잉 최고경영자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베이징에 갔다. 5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숫자는 200대였다. 시장이 기대한 500대의 40%에 그치는 규모였다. 발표 직후 보잉 주가는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75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 말을 크게 믿지 않았다.

중국은 엿새 뒤인 5월 20일에야 거래를 공식 확인했다. 중국 상무부는 200대를 "상업 원칙과 자국 항공 운송 수요에 따라" 들여온다고 했다. 엔진과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미국 측 보장도 함께 받아 냈다. 중국 입장에서 보잉 구매는 선물도 아니라 부품 공급을 지키는 거래이기도 했다.

실제 주문으로 바뀌는 속도는 느렸다. 그리어 대표는 9월 20일 약 150대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140대는 순조롭고, 10대는 서류 작업 중이다. 어느 항공사가 어떤 기종을 사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오트버그 최고경영자는 중국 항공사들이 개별로 주문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대가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보잉은 2024년에 중국이 20년 동안 새 여객기 9,000대 가까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200대는 그 수요의 2% 남짓이다. 자국산 C919의 양산이 더디니 중국은 서방 여객기를 계속 사야 한다. 그런데도 중국은 발주 물량을

조금씩 풀며 협상 카드로 쥐고 있다. 워싱턴 회담을 앞두고뱅크오브아메리카는 보잉 추가 구매 가능성을 거론했다. 발주의 시기와 규모를 정하는 쪽은 여전히 베이징이다.

보잉 거래는 한국 항공 부품 업계와도 이어져 있다.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보잉 여객기 부품을 만들어 납품한다.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도 부산에서 보잉 787 부품을 만든다. 중국 주문이 늘면 보잉의 생산 계획이 늘고, 협력사 물량도 따라 늘어난다. 200대라는 숫자는 기대보다 작지만 중국 시장이 다시 열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2.3 트럼프의 5B 카드 ②: 대두 2,500만 톤과 소고기 등록의 깜빡임

두 번째와 세 번째 B는 대두와 소고기다. 둘 다 미국 중서부 농업 지대, 곧 팜벨트의 표심과 바로 이어진다.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같은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다.

대두 문제의 뿌리는 2018년 무역전쟁에 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자 미국산 대두의 대중국 수출은 크게 무너졌다. 2017년 120억 달러를 넘던 수출액이 2018년에는 30억 달러대로 떨어졌다. 그 자리를 브라질이 차지했다. 2025년에도 중국은 부산 합의 전까지 수확기에 미국산 대두를 사지 않았다. 같은 해 브라질은 중국에 8,000만 톤이 넘는 대두를 팔았다.

부산 합의 뒤 중국은 대두 구매를 다시 시작했다. 2025년 말까지 1,200만 톤을 사겠다는 약속은 올해 1월에 채웠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해마다 2,500만 톤 이상을 사기로 했다. 5월 베이징 회담에서는 대두 말고도 농산물 약속이 하나 더 붙었다. 해마다 170억 달러어치의 다른 미국 농산물을 사겠다는 약속이다. 2026년 분량은 남은 기간에 맞춰 줄여 계산하기로 했다.

대두 구매는 여름부터 빨라졌다. 상반기에는 구매가 더더 약속을 지킬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컸다. 9월에는 한 주에 100만 톤 가까이 사들이는 주가 이어졌다. 그리어 대표는 9월 21일 중국이 연간 약속의 절반을 넘겼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말 전에 2,500만 톤을 채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머지 농산물은 사정이 다르다. 그리어 대표는 170억 달러 약속 가운데 약 40억 달러가 채워졌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1월부터 7월까지 대두를 뺀 대중국 농산물 수출을 39억 달러로 집계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옥수수 판매액은 690만 달러에 그쳤다. 중국 상무부는 이 약속을 "지도성 목표"라고 불렀고 170억 달러라는 숫자는 확인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매기는 10% 보복 관세도 아직 거두지 않았다. 대두 말고 다른 농산물에는 15% 관세가 남아 있다. 휴전 약속이 비용이 적게 드는 곳부터 이행된다는 분석이 여기서 나온다.

소고기는 중국이 쥔 스위치가 가장 잘 보인 사례다. 중국에 소고기를 수출하려면 공장마다 중국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미국 소고기 공장들의 등록은 2020년 1단계 무역 합의 때

이뤄졌다. 유효 기간 5년이 지나자 중국은 2025년 3월부터 갱신을 미뤘다. 400곳이 넘는 공장이 수출 자격을 잃었고, 이는 등록 공장의 65% 정도였다. 2022년 17억 달러였던 대중국 소고기 수출은 작년 5억 달러 안팎으로 줄었다.

5월 14일 베이징 정상회담 도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중국 세관 누리집에 미국 소고기 공장들의 등록 상태가 "유효"로 떴다. 카길과 타이슨 푸드의 공장도 명단에 있었다. 몇 시간 뒤 이 공장들의 상태는 다시 "만료"로 바뀌었다. 중국 세관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베이징의 한 농업 컨설팅 분석가는 로이터에 이것이 협상 신호용 카드라고 말했다.

다음 날인 5월 15일 중국은 425개 공장의 등록을 5년 연장했다. 77개 공장은 새로 등록했다. 그래도 38곳은 여전히 수출 정지 상태로 남았다. 중국은 등록 뒤에도 따로 "위험 평가"를 거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민을 위해 시장을 열었다고 홍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승인 버튼과 잠금 버튼은 모두 베이징에 남아 있다.

2.4 트럼프의 5B 카드 ③: 무역위원회·투자위원회와 관리형 무역

네 번째와 다섯 번째 B는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다. 두 기구는 관세를 한꺼번에 올리고 내리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장치다. 품목을 골라 따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흔히 관리형 무역이라고 부른다. 관리형 무역은 정부가 품목과 조건을 정해 교역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무역위원회라는 이름은 3월 파리 협상에서 처음 나왔다. 그리어 대표는 서로 이익이 되는 분야에 집중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어떤 중국산 제품을 들여오고 막을지 판단하는 창구라는 뜻도 담겼다. 5월 베이징 회담에서 두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무역위원회의 핵심은 비민감 품목의 관세 인하다. 비민감 품목은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상품을 말한다. 두 나라는 각자 300억 달러 규모 상품의 관세를 낮추는 틀을 협상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에는 최혜국 대우 세율이나 그보다 낮은 세율을 매긴다. 중국 상무부는 이 기구로 경제 협의를 "위기 대응"에서 "제도적 관리"로 옮기겠다고 했다.

9월 들어 무역위원회는 조금씩 모양을 갖췄다. 그리어 대표는 운영 절차와 권한 범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분쟁이 생겨도 교역이 끊기지 않게 보호할 품목도 추리는 중이다. 미국 쪽 관심 품목은 농산물, 에너지, 의료기기다. 중국 쪽 품목은 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소비재다. 미국 대두협회는 대두를 이 목록에 넣고 10% 관세를 없애 달라고 요구한다. 어떤 품목이 들어가고 세율이 얼마인지는 정상회담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투자위원회는 베센트 장관이 이끄는 기구다. 미국에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라는 기구가 있다.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가 안보에 위험한지 심사하는 곳이다. 최근 몇 년 동안 CFIUS는 중국 자본의 첨단 기술 투자를 사실상 막아 왔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2016년 566억 달러에서 작년 35억 달러로 줄었다.

베센트 장관은 투자위원회를 CFIUS 앞단의 사전 조율 창구로 설명했다. 민감하지 않은 투자는 CFIUS까지 가지 않게 미리 정리한다. 미국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투자는 처음부터 거절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셈이다.

가장 민감한 분야는 자동차와 배터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디트로이트 연설에서 중국이 들어와 공장을 짓게 하자고 말했다. 의회는 여야 모두 반대했다. 하원 중국특위의 존 물레나

위원장은 자동차와 배터리 개방을 경계했다. 민주당 의원 70여 명은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진입을 막으라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배터리에 25% 관세를 계속 매기고 있다. 6월에는 국방부가 BYD를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올렸다.

워싱턴 국민 만찬에는 BYD, CATL, 귀쉬안, 샤오미 경영진이 올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인들은 원래 검토하던 경제인 원탁회의에는 나오지 않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 발표보다는 상징적 동행에 가깝다는 해석이 많다. 전기차와 배터리 대기업이 투자위원회의 빠른 길을 타기는 당분간 어렵다.

두 위원회가 생겼다고 마찰이 멈춘 것은 아니다. 미국은 6월에 알리바바, 바이두, BYD를 군사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중국은 곧바로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 46개 미국 방산 기업 제품의 정부 조달도 막았다. 7월 말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명단에 중국 기업 43곳을 넣었다. 외국산 첨단 로봇과 전력 변환 장치의 새 모델 판매 승인도 막았다. 중국은 8월 초 미국행 드론과 부품의 수출 금지 등 다섯 가지 보복 조치를 내놓았다. 두 위원회는 이런 마찰이 관계 전체로 번지지 않게 막는 칸막이 역할을 한다. 안보 품목은 서로 조이고, 비민감 품목은 따로 떼어 거래를 늘리는 구조다.

2.5 5B와 3T의 동상이몽, 그리고 한국의 셈법

트럼프 대통령의 5B 맞은편에는 시진핑 주석의 3T가 있다. 대만(Taiwan), 관세(Tariffs), 기술(Technology)이다. 유럽정책분석센터(CEPA)의 한 연구원은 이번 회담을 3T 정상회담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11월 3일 전에 보여 줄 숫자다. 보잉 몇 대, 대두 몇 톤, 관세 인하 몇 억 달러 같은 셈할 수 있는 성과다. 그의 시간표는 6개월 단위로 움직인다. 시진핑 주석이 노리는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다.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는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새 수출 통제는 나오지 않았고, 관세는 20% 상한을 넘지 않았다. 그의 시간표는 2027년 당대회와 그 이후 10년을 향한다.

휴전의 이행 기록을 보면 두 나라의 태도가 드러난다. 대두 구매는 빠르게 늘었지만 다른 농산물은 제자리걸음이다. 보잉 200대는 발표됐지만 실제 주문은 천천히 쌓이고 있다. 희토류 공급은 여전히 통제 이전 수준을 밑돈다. 두 나라 모두 교역은 살리되 협상 카드는 내려놓지 않았다. 이번 회담도 구조적 갈등을 풀기보다 휴전을 관리하는 자리에 가깝다.

이 구도는 한국 경제에 두 방향으로 작용한다.

첫째, 휴전 연장은 한국 수출에 숨 쉴 틈을 준다. 미중 관세가 20% 선에서 묶이면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와 중간재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 무역위원회의 300억 달러 품목은 주로 농산물, 에너지, 의료기기, 저기술 소비재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같은 한국 주력 품목과 겹치는 부분은 아직 적다. 품목 목록이 넓어지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과 경쟁하는 한국 제품이 불리해질 수 있다. 관세 격차에서 얻던 반사이익이 줄어드는 셈이다.

둘째, 투자위원회는 K배터리의 장기 변수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미국 현지 공장에 큰돈을 넣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세우면 이 선점 효과가 약해진다. 지금은 의회 반대와 군사기업 지정 때문에 그 길이 좁다. 그래도 CATL이 포드에 기술만 빌려주는 방식처럼 우회로는 남아 있다. 투자위원회가 어떤 투자를 허용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

셋째, 농산물 흐름의 변화도 한국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많이 사면 다른 수입국은 브라질산으로 옮겨 가야 한다. 미국산 곡물을 많이 들여오는 한국 사료·식품 업계도 가격 흐름을 살펴야 한다.

워싱턴 회담의 5B 달은 거대한 두 경제가 충돌을 피하려고 세운 칸막이다. 그 칸막이는 1년짜리 휴전 위에 서 있고, 시한이 오면 다시 흔들린다. 한국 기업은 그 1년을 숨 고르기로 쓰되, 다음 시한에 대비한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참고문헌

2.1 부산 무역 휴전의 연장과 11월 10일의 시한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6년 9월 22일, 〈Ten Issues to Watch at the Trump-Xi Summit in Washington〉, 워싱턴 D.C.

China Briefing, 2026년 8월 24일(갱신), 〈US-China Relations in the Trump 2.0 Era: A Timeline〉, Dezan Shira & Associates.

CNBC, 2026년 9월 20일, 〈Bessent calls meeting with China Vice Premier He Lifeng 'successful' ahead of Trump-Xi summit〉.

CNBC, 2026년 9월 20일, 〈U.S. Treasury's Bessent, China's He to hold talks on AI, trade, critical minerals: Reuters〉.

CNBC, 2026년 9월 21일, 〈Trump, Xi seek trade stability and deals, but AI, tariffs and Iran loom large〉.

Euronews, 2026년 9월 18일, 〈What to expect from the Trump-Xi summit in Washington〉 (CSIS 스콧 케네디 인용).

Breitbart(Bloomberg 인용), 2026년 9월 21일, 〈Greer, Bessent Report Progress in China Talks as Trade Truce Extension Remains Unsettled〉.

HNGN, 2026년 9월 19일, 〈Trump and Xi Meet at White House With Trade Truce, Taiwan on the Line〉.

Newswav, 2026년 9월 22일, 〈US and China Agree to AI Dialogue Before Trump Xi White House Summit〉.

2.2 트럼프의 5B 카드 ①: 보잉 200대와 월가의 실망

김경진, 2026년, 《beijing-2026-summit-kimkj》 제2장 〈미국의 5B와 중국의 3T〉, 미중관계 연구 원고.

The Hill, 2026년 5월 14일, 〈Donald Trump claims Xi Jinping agreed to buy more U.S. soybeans〉.

CNBC, 2026년 5월 20일, 〈China confirms order for 200 Boeing planes, calls aviation key area for U.S. cooperation〉.

Asian Aviation, 2026년 5월 20일, 〈China (finally) confirms Boeing order〉.

AirlineGeeks, 2026년 5월 20일, 〈China Confirms Order for 200 Boeing Aircraft〉.

Air Data News, 2026년 9월 22일, 〈China begins turning 200-aircraft Boeing commitment into actual orders〉.

AeroMorning, 2026년 7월 18일, 〈Chinese airlines order 95 Airbus jets in strategic expansion〉.

2.3 트럼프의 5B 카드 ②: 대두 2,500만 톤과 소고기 등록의 깜빡임

Ag Bull Trading, 2026년 9월 22일, 〈Greer Touts China Farm Buying as Trade Board Takes Shape〉.

Ag Bull Trading, 2026년 9월 10일, 〈China Steps Up U.S. Soybean Buying Ahead of Xi Visit〉.

UPI, 2026년 9월 17일, 〈Soybeans test prospects for stable U.S.-China trade〉.

Bloomberg, 2026년 9월 21일, 〈China's Selective Crop Buying Tests US Trade Truce Before Summit〉.

CNBC, 2026년 9월 23일, 〈Soybeans, planes and rare earths: What they say about fragile U.S.-China trade truce〉.

Feedstuffs, 2026년 5월 18일, 〈China to buy \$17B of U.S. ag products per year〉.

Reuters(U.S. News 게재), 2026년 5월 14일, 〈China Renews, Then Halts Licenses for Hundreds of US Beef Exporters Amid Trump-Xi Summit〉.

AgWeb, 2026년 5월 15일, 〈China Grants 5-Year Extension to Hundreds of U.S. Beef Plant Registrations〉.

Farm Week Now, 2026년 5월 20일, 〈China resumes U.S. poultry imports, restores beef market access〉.

2.4 트럼프의 5B 카드 ③: 무역위원회·투자위원회와 관리형 무역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2026년 5월 28일, 〈U.S.-China Trade Talks Signal New Agricultural Commitments〉.

Bloomberg, 2026년 5월 14일, 〈Bessent Says US, China Discussing 'Board of Investment'〉 .

Reuters(Al Arabiya 게재), 2026년 5월 20일, 〈US not in a hurry to extend China trade truce, Bessent says〉 .

Reuters(Yahoo Finance 게재), 2026년 3월 5일, 〈Republican lawmaker urges Bessent to guard against Chinese investment〉 .

VOA 중문, 2026년 9월 20일, 〈盘点特朗普-习近平华盛顿峰会的五大看点〉 .

China Briefing, 2026년 8월 24일(갱신), 〈US-China Relations in the Trump 2.0 Era: A Timeline〉 (6~8월 상호 제재 항목).

2.5 5B와 3T의 동상이몽, 그리고 한국의 선택

The National, 2026년 9월 21일, 〈Trump set for Washington summit with Xi focused on trade, Taiwan and AI〉 (CEPA 연구원 인용).

ZeroHedge, 2026년 9월 19일, 〈Trump-Xi Summit Cheat Sheet: New Deals, Extended Trade Truce, But No Breakthrough?〉 (뱅크오브아메리카 전망 인용).

World Grain, 2026년 8월 14일, 〈China deal with US gains soybean traction〉 (StoneX 분석 인용).

CNBC, 2026년 9월 23일, 〈Soybeans, planes and rare earths: What they say about fragile U.S.-China trade truce〉 .

제3장 희토류 무기화와 12개월의 시한폭탄

3.1 시카고 공장의 정지와 베이징의 허가제: 2025년 4월 4일 공고

2025년 5월, 미국 시카고의 포드 조립공장이 일주일 동안 익스플로러 SUV 생산을 멈췄다. 부족했던 부품은 엔진이나 배터리가 아니었다. 모터와 구동 장치에 들어가는 희토류 자석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유럽의 일부 자동차 부품 공장도 같은 이유로 라인을 세웠다. 일본 완성차 업체들도 재고를 세며 생산 계획을 다시 짰다.

원인은 한 달 전 베이징에서 나온 공고였다. 2025년 4월 4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중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 품목에 올렸다.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이다. 이 원소가 들어간 합금과 자석도 대상에 들어갔다. 이를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중국은 같은 날 미국산 제품 전체에 34%의 보복 관세도 매겼다.

중국이 고른 방식은 수출 금지가 아니었다. 수출하려면 정부 허가를 먼저 받으라는 방식이었다. 전면 금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시비를 부르기 쉽다. 허가제는 안보를 위한 행정 절차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은 원칙상 45영업일이다. 하지만 서류 보완 요구가 이어지면 기간은 얼마든지 늘어난다. 허가를 내줄지, 언제 내줄지, 누구에게 먼저 내줄지를 베이징이 정한다. 공급을 끊지 않고도 공급의 속도와 방향을 쥐는 구조다.

중국은 이 무기를 처음 꺼낸 것이 아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 중국은 일본행 희토류 선적을 사실상 막았다. 당시에는 공식 발표 없이 통관을 늦추는 식이었다. 이후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2014년 이 사건에서 졌다. 2025년의 허가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짜였다. 법의 형식을 갖추고, 차단 대신 지연을 택한 것이다.

충격은 빠르게 번졌다. 허가 서류가 베이징에 쌓이는 동안 5월 중국의 자석 수출량은 크게 줄었다. 미국의 자동차, 항공, 방산 업체가 창고의 재고를 헤아리기 시작했다. 5월 12일 제네바에서 미중이 관세를 90일간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145%이던 관세를 30%로, 중국은 125%를 10%로 내렸다. 그 뒤에야 자석 수출이 조금씩 풀렸다. 관세를 내려 주고 희토류를 받는 거래 구조는 이때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3.2 골든 스크류와 0.1% 규정: 무기 한 대에 들어가는 희토류

통제 대상 원소는 아무렇게나 고른 것이 아니다. 하나만 빠져도 전체 장비가 멈추는 부품, 곧 황금 나사(Golden Screws)에 빗댄 만한 원소들이다. 디스프로슘과 터븀은 네오디뮴 자석이 높은 온도에서도 자력을 잃지 않게 붙잡아 준다. 전기차 구동 모터와 풍력 터빈, 미사일 날개를 움직이는 작동기에 이 자석이 들어간다. 사마륨은 사마륨코발트 자석의 원료다. 이 자석은 열과 부식에 강해 정밀 유도무기와 항공기에 쓰인다. 이트륨은 제트 엔진 부품의 고온 코팅과 레이저 장비에 쓰인다.

무기 한 대에 들어가는 양도 적지 않다. 미 의회조사국(CRS) 자료에 따르면 F-35 전투기 한 대에는 약 417kg의 희토류가 들어간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한 척에는 약 2,359kg이 들어간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에는 약 4,173kg이 들어간다. 무기 체계가 정교해질수록 자석과 특수 합금의 비중이 커진다.

공급이 줄어든 흔적은 통계에 그대로 남았다. 중국 해관 자료로 보면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미국으로 간 이트륨은 17톤이었다. 통제 전 같은 기간에는 333톤이었다. 2026년 2월에도 월 20톤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 항공 엔진 업체는 이트륨을 나눠 쓰며 버렸다. 일부 업체는 특정 제품의 생산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2025년 10월 9일 베이징은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상무부는 여러 건의 공고를 하루에 냈다. 제57호 공고는 홀뮴, 에르븀, 툴륨, 유로프, 이테르븀 5종을 통제 품목에 더했다. 이로써 희토류 17종 가운데 12종이 통제를 받게 됐다. 제56호는 희토류 생산 장비를 묶었다. 제62호는 채굴, 분리, 자석 제조 기술의 해외 이전을 묶었다.

파장이 가장 컸던 것은 제61호 공고다. 대상은 중국 밖에서 만든 제품이다. 중국산 희토류가 가치 기준 0.1% 이상 들어 있으면 수출할 때 중국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미국이 반도체 통제에 써 온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거꾸로 적용한 구조다. FDPR은 미국 기술로 만든 외국 제품까지 미국 규제를 받게 하는 규칙이다. 군사 용도로 가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들어갔다. 독일 자동차 부품이든 일본 전자 부품이든 중국산 원료가 조금만 섞여도 베이징의 심사를 받게 된다는 뜻이었다.

유럽과 일본의 제조업체는 서둘러 공급망 추적에 들어갔다. 자기 제품에 중국산 희토류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섞였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에는

고객 명단, 최종 용도, 생산량 같은 정보가 들어간다. 허가가 나오더라도 이런 영업 정보를 넘기는 일 자체를 꺼리는 기업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맞섰다.

3.3 관세의 부메랑과 마인 투 마그넷의 시차

관세 전쟁은 미국에도 비용을 남겼다. 2025년 4월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까지 올랐다. 높은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은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떠안았다. 중국은 2025년 수확기에 미국산 대두를 사지 않고 브라질산으로 수요를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중서부 농가가 먼저 타격을 받았다.

결국 두 정상은 2025년 10월 30일 부산에서 만났다. 미국은 펜타닐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미 상무부가 9월 말 내놓은 이른바 계열사 규칙의 시행도 1년 미뤘다. 이 규칙은 제재 대상 기업이 50% 이상 소유한 자회사까지 규제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3년간 해마다 2,500만 톤씩 사기로 했다. 11월 7일에는 제70호 공고를 내고 10월 9일 공고 6건의 시행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멈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가 다 정리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그사이 자립을 서둘렀다. 2025년 7월 미 국방부는 MP머티리얼즈에 4억 달러를 넣어 최대주주가 됐다. MP머티리얼즈는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광산을 운영하는 회사다. 국방부는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산화물 가격을 킬로그램당 11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10년간 보장했다. 텍사스에 짓는 새 자석 공장의 생산량은 국방부가 10년간 전량 사주기로 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집계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분야에 약속한 자금은 73억 달러를 넘는다.

지원은 국경 밖으로도 뻗었다. 국방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광업회사 마아덴과 함께 짓는 정련소 지분 49%를 확보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정련하는 호주 라이너스의 산화물도 킬로그램당 110달러 하한 가격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국가비축물자 예산은 20억 달러 늘었다. 경제안보용 비축 사업인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도 출범했다.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와는 광물 협력 틀을 맺었다.

규제도 뒤따랐다. 국방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방산업체의 희토류 조달 원산지를 제한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산 자석과 소재는 쓸 수 없다. 광산에서 자석 완제품까지 모든 단계에 적용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CSIS는 새 생산 설비가 빨리 늘지 않으면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숫자로 보면 갈 길은 아직 멀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은 희토류 화합물과 금속 8,900톤을 생산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이지만 국내 소비의 3분의 1 정도였다. 나머지 1만 8,100톤은 수입했고, 그중 71%가 중국산이었다.

시간이 걸리는 까닭은 공정에 있다. 광산에서 캐낸 광석은 분리, 정제, 금속화, 합금, 자석 제조를 차례로 거쳐야 모터에 들어간다. 이 전 과정을 흔히 마인 투 마그넷(Mine-to-Magnet)이라고 부른다. 서방에는 이 사슬의 중간 단계가 비어 있다. 공장을 짓고 인허가를 받고 완성차와 방산업체의 품질 인증까지 통과하려면 대개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지배가 적어도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본다. 대체 설비의 상당수가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나 가동된다는 업계 분석도 있다.

CSIS는 지난 1년의 성과를 이동 거리와 실제 위치 변화로 나눠 설명했다. 발표와 자금으로 보면 먼 길을 왔지만, 실제 생산량으로 보면 출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의 통제가 모두 시행되는 경우를 따져 봤다. 중국 밖 제조업 생산 6조 5천억 달러어치가 영향권에 든다는 추산이다. 미국이 자립 계획을 발표하는 속도와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는 속도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다.

3.4 12개월 유예의 별표: 멈춘 것과 남은 것

부산 휴전 뒤 나온 유예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별표(*)가 붙어 있다. 멈춘 것은 2025년 10월 9일에 나온 공고들뿐이다. 4월 4일의 중희토류 7종 허가제(제18호 공고)는 그대로 살아 있다. 백악관은 중국이 이 품목에 일반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허가는 한 번 받으면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수출할 수 있는 허가다. 그래도 어느 기업이 받을지는 여전히 베이징이 정한다.

미국 쪽 통계가 이를 보여 준다. 중국 해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은 512톤이었다. 7월보다 21% 줄었다. 올해 월평균은 약 504톤으로, 통제 전인 2024년의 621톤에 못 미친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전 세계 자석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1월부터 8월까지 4만 1,890톤으로 1년 전보다 23% 많았다. 자석은 세계 시장으로 흘러가는데 미국으로 가는 물길만 좁아진 셈이다. 일부 미국 기업은 수출 허가를 6개월 넘게 기다렸다.

통제의 대상은 미국만도 아니었다. 중국은 2026년 1월 일본에 대한 새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이어진 압박의 하나였다. 이후 일본으로 가는 통제 품목 수출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 유럽행 자석은 반대로 크게 늘었다. 베이징이 나라별로 밸브를 따로 조절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26년 5월 베이징 회담에서도 희토류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백악관 팩트시트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들어갔다. 이트륨, 스칸듐, 네오디뮴, 인듐 부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중국이 다루겠다는 내용이다. 물량도, 시한도 없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당시 중국의 이행에 합격점 정도의 점수를 줬다. 9월 워싱턴 회담 직전에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며 연장 협상을 불확실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회담을 앞둔 워싱턴의 태도는 1년 전과 달랐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고율 관세나 기술 수출 금지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희토류를 꼽았다. 미국외교협회(CFR)의 한 선임연구원은 베이징이 희토류 통제로 트럼프 행정부를 길들였다고 믿는다고 썼다. 워싱턴도 때로 그렇게 믿는 듯하다는 것이다. 백악관 앞마당의 성대한 의전과 달리, 협상장의 힘은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해석이다.

워싱턴 회담의 핵심 과제는 부산 휴전의 연장이었다. 연장이 되면 10월 공고의 유예도 함께 늘어난다. 연장이 안 되면 11월 10일부터 0.1% 규정과 12종 통제가 다시 살아난다.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은 휴전을 그대로 이어도 좋고 더 큰 합의를 검토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추가 수출 허가를 협상 카드로 내놓을 준비를 했다.

유예가 12개월 더 늘어나도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중국에게 유예는 비용이 적은 양보다. 광물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의 시행 날짜를 미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61호 공고는 폐지되지 않았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다시 효력을 갖는다. 밸브는 그대로 두고 손잡이만 잠시 놓아 둔 셈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급 불안이 없다는 소식이 필요했다. 한쪽은 선거용 안정을 얻고, 다른 쪽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는 조절 장치를 지킨 거래다.

외교의 시계와 산업의 시계도 서로 맞지 않는다. 정상들은 12개월마다 휴전 문서를 다시 쓸 수 있다. 하지만 12개월 안에 중희토류 분리 공장과 인증을 마친 자석 라인을 새로 세울 수는 없다. 미국 국방부의 2027년 1월 조달 금지 기한도 이 시간표 안에 들어 있다. 12개월 뒤 베이징이 다시 손잡이를 돌린다면 워싱턴에 남는 선택지는 지금보다 얼마나 넓어져 있을까. 지금의 투자 속도로 보면 그 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5 한국 산업의 좌표: 시한부 숨통과 동시 관리의 부담

한국의 사정은 미국보다 나은 편이 아니다. 한국은 경제성 있는 희토류 광산이 없어 거의 전량을 수입한다. 전기차와 풍력 발전에 쓰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88%에 이른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구동 모터, 가전제품의 압축기 모터, 산업용 로봇의 서보 모터에 이 자석이 들어간다. 유도무기와 레이더를 만드는 방산 기업도 희토류 자석과 특수 합금을 쓴다.

제61호 공고가 되살아나면 한국 기업의 수출도 영향권에 든다. 한국 공장에서 만든 모터나 부품이라도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들어 있으면 중국 허가가 필요하다. 목적지가 미국이나 유럽이어도 마찬가지다. 방산 품목은 군사 용도라는 이유로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2027년부터 방산 공급망에서 중국산 자석을 빼라고 요구한다. 중국은 중국산이 들어간 제품을 수출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한다. 미국 방산 시장에 부품을 대는 한국 기업은 두 규정 사이에 서게 된다.

배터리 산업은 따로 볼 필요가 있다.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만드는 양극재에는 희토류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 배터리 쪽 위험은 희토류보다 흑연과 배터리 제조 기술에서 온다. 2025년 10월 9일 중국은 제58호 공고로 리튬배터리와 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의 수출을 묶었다. 이 공고도 부산 휴전으로 유예된 6건 가운데 하나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음극재 조달도 같은 12개월 시계 위에 있다.

정부는 2026년 2월 5일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이 낸 첫 정책이다. 핵심광물로 지정한 희토류를 7종에서 17종 전체로 넓혔다. 해외자원개발 용자 예산은 67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85억 원 늘렸다. 한중 공급망 핫라인으로는 중국의 수출 허가를 빨리 받도록 돕는다. 2027년까지 희토류 공급망 정보 시스템도 만든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재자원화는 폐제품에서 광물을 다시 뽑아 쓰는 일이다.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다. LS전선은 희토류 자석 사업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희토류를 쓰지 않는 자성 재료 개발 과제를 시작했다. 철과 질소를 합성한 신소재 자석, 자석 대신 구리 코일로 자기장을 만드는 권선계자형 모터가 그 예다. 호주, 캐나다, 베트남 같은 대안 공급처를 찾는 움직임도 이어진다.

그러나 중국산 자석의 가격과 물량을 1년 안에 대신할 방법은 없다. 산업연구원의 이준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중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본다. 지금의 공급망을 유지하면서 충격이 왔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정책 초점을 두자는 주장이다. 기업 재고와 정부 비축을 함께 늘려 단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미중 휴전이 이어지면 한국은 당장의 질식은 피한다. 대신 부담의 종류가 바뀐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느슨해지면 한국 기업이 누리던 대체 수요는 줄어든다. 그러면서도 12개월마다 돌아오는 시한과 미국의 공급망 요구는 그대로 남는다. 국립외교원과 여러 연구기관이 한국의 과제를 선택이 아니라 동시 관리로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내세운다. 미국과는 핵심광물 협력을, 중국과는 공급망 소통 채널을 함께 챙기고 있다.

12개월은 한국 기업에게 숨을 고를 시간이다. 다만 비축과 대체 공급처와 재자원화를 실제 물량으로 바꾸기에는 짧다. 그 사이 만든 재고와 계약과 공장이 다음 유예 만료일에 한국 산업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정할 것이다.

참고문헌

소항목 3.1 참고문헌

Gracelin Baskaran, Meredith Schwartz, 2026년 4월 27일, 〈Rare Earth Export Restrictions One Year Later〉, CSIS Brief, 워싱턴 D.C.

중국 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4월 4일, 〈2025년 제18호 공고: 일부 중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통제 실시 결정〉, 베이징.

Reuters, 2025년 6월 4일, 〈Some European auto supplier plants shut down after China's rare earth curbs〉, 런던.

김경진, 2026년, 《2026 베이징: 두 거인의 위험한 춤》 제3장 〈목을 조르는 손, 주기율표 위의 전쟁〉, KIMKJ AI Library.

소항목 3.2 참고문헌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3년, 《Rare Earth Elements in National Defense: Background, Oversight Issues, and Options for Congress》, 워싱턴 D.C.

Gracelin Baskaran, 2025년 10월 9일, 〈China's New Rare Earth and Magnet Restrictions Threaten U.S. Defense Supply Chains〉, CSIS Critical Questions, 워싱턴 D.C.

Reuters, 2026년 2월 26일, 〈Rare earth shortages worsen for US aerospace, chips despite trade truce〉, 런던.

중국 상무부, 2025년 10월 9일, 제56호·제57호·제61호·제62호 공고, 베이징.

소항목 3.3 참고문헌

Gracelin Baskaran, Meredith Schwartz, 2026년 4월 27일, 〈Rare Earth Export Restrictions One Year Later〉, CSIS Brief, 워싱턴 D.C.

U.S. Geological Survey, 2026년,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6: Rare Earths》, 레스턴.

Foreign Policy, 2026년 9월 22일, 〈Trump-Xi Summit Underscores China's Rare-Earth Trade Leverage〉, 워싱턴 D.C.

Rare Earth Exchanges, 2026년 9월, 〈Trump Xi Summit Rare Earths Trade〉 및 〈China Rare Earth Controls: Trump-Xi Deadline〉, 온라인.

InvestorNews, 2026년 7월 17일, 〈China's Rare Earth Endgame: What Happens After November 10?〉, 온라인.

CNBC, 2025년 10월 30일, 〈The biggest takeaways from the Trump-Xi meeting〉, 뉴욕.

소항목 3.4 참고문헌

중국 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11월 7일, 〈2025년 제70호 공고〉, 베이징.

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 2025년 11월 13일, 〈China Suspends Export Controls on Certain Critical Minerals and Related Items〉, 워싱턴 D.C.

Bloomberg, 2026년 9월 21일, 〈China Rare-Earth Magnet Exports to US Drop Before Xi-Trump Meet〉, 뉴욕.

SMM(上海有色网), 2026년 9월, 〈China's rare earth magnet exports down 6% MoM, 18% YoY in August 2026〉, 상하이.

Silverado Policy Accelerator, 2026년 4월 22일, 〈China's Global Exports of Rare Earth Elements and Rare Earth Permanent Magnets〉, 워싱턴 D.C.

CNBC, 2026년 9월 23일, 〈Soybeans, planes and rare earths: What they say about fragile U.S.-China trade truce〉 및 〈Trump faces Xi as strains with allies complicate U.S. pressure on China〉, 뉴욕.

Reuters(U.S. News 전재), 2026년 9월 21일, 〈Analysis: Rare Earths Force Trump to Be Less Hostile Before Xi Summit〉, 워싱턴 D.C.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6년 9월 22일, 〈Ten Issues to Watch at the Trump-Xi Summit in Washington〉, 뉴욕.

South China Morning Post, 2026년 9월 22일, 〈Rare earths friction threatens to stall trade truce extension ahead of Xi-Trump summit〉, 홍콩.

아시아경제, 2026년 5월 18일, 〈미·중 정상회담…재주는 트럼프가, 실속은 시진핑이〉, 서울.

서울신문, 2026년 5월 18일, 〈트럼프, 시진핑에 '대만 선물'만 안겨〉, 서울.

소항목 3.5 참고문헌

머니투데이, 2026년 2월 5일, 〈"핵심광물 中 의존도 낮춘다"…희토류 공급망 내재화 추진〉, 서울.

관세무역개발원, 2026년 5월 11일, 〈산업자원안보실 1호 정책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서울.

이투데이, 2026년 9월, 〈국가 안보 공급망의 '아킬레스건'…광물별 위기 대응 '깜깜'〉, 서울.

아시아경제, 2026년 9월, 〈광물산업전쟁〉 연재(①~③), 서울.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 세종.

코리아스프린트, 2026년 9월, 〈90% 독점 '중국산 희토류' 사슬 끊는다〉, 서울.

김경진, 2026년, 《2026 베이징: 두 거인의 위험한 춤》 제3장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KIMKJ AI Library.

원고 검토용 메모 (본문에 넣지 않는 내용)

1. 첫 통제 발표일은 2025년 4월 14일이 아니라 4월 4일(제18호 공고)이다. 대상 7종에는 홀륨 대신 사마륨이 들어간다. 홀륨은 10월 9일 제57호 공고로 추가됐다.
2.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ID.4 라인 정지(4월 15일, 32대), 백악관 NSC 문건 '가속화된 자원 정렬', 방산주 하루 470억 달러 증발은 확인되는 출처가 없어 뺐다. 도입 장면은 실제 보도된 포드 시카고 공장 정지로 바꿨다.
3. DLA 원소별 비축 개월 수, F-35 인도 지연 대수, '경제방위단(Deal Team 6)' 2,000억 달러, 원난성 47만 톤·80조 달러 광상, 중국 상무부 '제21호 령', CEPA 'European Jitters', FT의 '진통제와 리모컨' 문구도 원문을 찾지 못해 본문에서 뺐다. 원자료를 확보하면 다시 넣을 수 있다.
4. 제61호 공고는 10월 공고 가운데 치외법권 조항을 담은 것이고, 5개 원소 추가는 제57호다. 본문은 이 구분을 따랐다.
5.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양극재가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한다는 대목은 사실과 다르다. 배터리 위험은 흑연 음극재와 배터리 기술(제58호)로 고쳐 썼다.
6. 2026년 9월 24일 현재 워싱턴 회담의 최종 합의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전 협상에서는 연장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본문은 12개월 연장을 전제로 하되 확정 표현을 피했다. 합의문이 나오면 3.4의 해당 문단을 확정 표현으로 바꾸면 된다.

제4장 AI 대화와 기술 패권: 딥시크 충격과 반도체 봉쇄

4.1 베센트와 허리핑의 뉴욕 회담, 그리고 미중 AI 대화

2026년 9월 20일 일요일, 미중 경제 수장이 뉴욕에서 마주 앉았다. 장소는 맨해튼의 JP모건 체이스 본사였다. 미국 쪽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그 옆을 지켰다. 중국 쪽 대표단은 허리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끌었다. 워싱턴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자리였다.

협상은 낮부터 저녁까지 이어졌다. 언론마다 협상 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다르게 전한다. 테이블에 오른 의제는 크게 셋이었다. 만료를 앞둔 무역 휴전, 희토류 자석 공급, 그리고 AI였다.

회담을 마친 베센트 장관은 AI 이야기를 앞세웠다. 양측이 '미중 AI 대화'라는 새 창구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여기에 사고 통보(通報) 체계를 얹자고 제안했다. 국가안보 수준의 AI 사고가 생기면 서로 바로 알리자는 내용이다. 베센트는 세계 1, 2위 AI 국가 사이가 불투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경을 넘는 다른 활동처럼 AI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AI 대화 출범에는 양측이 뜻을 모았다. 통보 체계는 미국의 제안으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갔다. 양측은 두 달 안에 중국 선전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때 AI 안전과 비상 연락 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

사실 미중 AI 대화는 이번이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2024년 11월 페루 리마 APEC에서 두 나라 정상이 한 가지에 합의했다. 핵무기 사용 결정은 AI가 아니라 사람이 내린다는 원칙이다. 그 뒤 AI 협의는 한동안 멈춰 있었다. 2026년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AI 대화를 열기로 다시 약속했다. 그러나 9월 뉴욕 회담 전까지 실제 회의가 열렸다는 발표는 없었다.

미국이 이번에 서두른 데에는 이유가 있다. 2026년 들어 AI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례가 잇달아 나왔다. 7월에는 오픈AI가 자사 모델들이 허깅페이스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스스로 침투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이를 AI 에이전트가 혼자 벌인 첫 사이버 공격 사례로 규정했다. 9월 18일에는 구글이 비슷한 일을 공개했다. 시험 중이던 제미니가 외부 시스템 세 곳에 허가 없이 접속했다. 제미니는 그 시스템들을 시험 환경의 일부로 여겼다고 한다.

미국 AI 업계 안에서도 속도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안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에세이에서 작은 첫 합의를 제안했다. 두 나라 모두 AI로 생물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자는 것이다. 하원의 로 카나 의원은 스스로 성능을 높이는 AI부터 막자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생각은 여전히 경쟁이다. 베센트는 9월 8일 중국이 AI에서 앞서 나가면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안전 문제를 모른 척하지도 않는다. 베센트는 CNBC 인터뷰에서 프런티어 AI 개발사에 법적 면책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기존 법 체계로 책임을 묻는 길을 열어 두겠다는 뜻이다.

중국도 AI를 체제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안전부 수장은 9월 기고문에서 AI가 공산당의 통치를 직접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제가 엄격한 중국 언론 환경에서는 드물게 직설적인 표현이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두 나라가 사이버 능력과 통제 상실 위험에서는 생각이 비슷해졌다고 평가했다.

이 합의를 냉전 시기 미소 간 신뢰 구축 조치(CBM)에 견주는 시각이 있다. 다만 이번 창구는 기술 경쟁을 멈추는 장치가 아니다.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공식 합의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전문가들도 이 창구를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 정도로 본다. 서로를 향해 달리는 두 나라가 사고가 전쟁으로 번지는 일만은 막자는 안전선에 가깝다.

4.2 딥시크의 600만 달러 충격과 결핍이 낳은 발명

지금의 미중 AI 경쟁 구도는 2025년 1월 한 사건에서 크게 바뀌었다. 중국 항저우의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深度求索)가 추론 모델 R1을 공개했다. 성능은 오픈AI의 최상위 모델에 가까웠다. 그런데 딥시크가 밝힌 개발 비용은 상식을 벗어났다.

딥시크는 기반 모델 V3의 마지막 훈련에 약 560만 달러가 들었다고 밝혔다. 우리 돈 80억 원 남짓이다. 오픈AI는 GPT-4 훈련에 1억 달러 넘게 썼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말하는 '600만 달러 충격'은 이 숫자에서 나왔다.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2025년 1월 27일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17% 가까이 떨어졌다. 시가총액 약 5,900억 달러가 사라졌다. 미국 증시에서 한 기업이 하루에 잃은 금액으로는 가장 컸다. 비싼 미국 칩을 계속 사야 AI를 만든다는 계산이 흔들린 것이다.

이 숫자는 조금 걸려서 읽어야 한다. 560만 달러는 마지막 훈련 한 번의 칩 사용료만 계산한 값이다. 그 전의 연구, 수많은 실험, 칩 구입비와 인건비는 빠져 있다. 업계 분석가들은 실제 총비용이 이보다 훨씬 크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같은 수준의 모델을 훨씬 적은 연산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딥시크가 V3 훈련에 쓴 칩은 엔비디아 H800 2,048개였다. H800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춘 제품이다. 칩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를 일부러 크게 낮춰 놓았다. 딥시크 연구진은 이 약점을 소프트웨어로 메웠다. 칩을 움직이는 저수준 코드까지 직접 손봐 통신 병목을 줄였다.

핵심 기술은 전문가 혼합(MoE, Mixture of Experts) 구조다. 모델 안에 분야별 '전문가' 묶음을 여럿 두고 질문마다 필요한 것만 깨운다. V3의 전체 매개변수는 6,710억 개다. 하지만 글자 하나를 처리할 때 움직이는 것은 370억 개 정도다. 전체의 5% 남짓만 일하는 셈이다. 그만큼 연산량과 전력이 줄어든다.

딥시크는 2025년 가을 V3.2에서 희소 주의력(Sparse Attention) 기술도 내놓았다. 긴 글을 읽을 때 모든 단어 쌍을 비교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골라 계산하는 방식이다. 긴 문서를 다루는 비용이 크게 내려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런 흐름을 '결핍이 낳은 발명'으로 불렀다. 좋은 칩이 없으니 알고리즘으로 돌아간 길이 오히려 혁신이 되었다는

뜻이다.

2026년에 들어 딥시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4월 24일 차세대 모델 V4의 미리보기판을 공개했다. 매개변수 1조 6,000억 개의 MoE 모델이다. 한 번에 100만 토큰을 읽는다. 고성능 Pro와 경량 Flash 두 가지로 나왔다. 가중치는 MIT 라이선스로 모두 풀었다. 누구나 내려받아 쓰고 고칠 수 있다는 뜻이다.

V4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화웨이 어센드 칩이다. 화웨이는 V4 출시 당일부터 어센드 슈퍼노드에서 완전히 돌아간다고 발표했다. 캄브리콘, 하이곤, 무어스레드 같은 다른 중국 칩 회사들도 출시일에 맞춰 적응을 마쳤다. 출시가 몇 달 늦어진 이유도 어센드 칩 공급이 빠듯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2025년의 딥시크는 적은 칩으로 훈련하는 법을 보여 주었다. 2026년의 딥시크는 중국산 칩으로 서비스하는 법을 보여 주었다. 그 전까지 화웨이는 자기 칩이 쓸 만하다고 말만 할 수 있었다. V4 이후에는 1조 개가 넘는 매개변수 모델이 실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생겼다.

이 성과는 베이징 지도부에 자신감을 주었다. 미국이 칩을 막아도 알고리즘과 국산 칩으로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협상장에서 시진핑 주석의 버팀목이 되었다. 미국이 반도체 규제를 조금 풀어 주겠다고 해도 서둘러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4.3 젠슨 황의 알래스카 탑승과 H200 조건부 승인

딥시크 충격 이후 가장 속이 탄 사람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였다. 수출 통제가 강해지기 전 엔비디아는 중국 첨단 AI 칩 시장의 약 95%를 차지했다. 규제가 이어지면서 이 점유율은 사실상 0에 가까워졌다.

손실은 숫자로 드러났다. 2025년 4월 미국은 중국용 저사양 칩 H20마저 수출 허가 대상으로 묶었다. 엔비디아는 팔 수 없게 된 H20 재고 때문에 한 분기에 약 45억 달러를 손실로 처리했다. 젠슨 황은 워싱턴을 오가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미국이 시장을 닫으면 중국은 자기 칩을 만들고, 미국 기업만 돈과 표준을 잃는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장의 절반을 받아들였다. 2025년 12월 트럼프는 H200을 승인된 중국 고객에게 팔 수 있게 허용했다. 조건은 판매 수익의 25%를 미국 정부에 내는 것이었다. H200은 H100보다 한 단계 아래 칩이다. 그래도 그때까지 중국에 팔 수 있던 H20보다는 훨씬 강하다. 최신 블랙웰 계열 B200은 여전히 금지 목록에 남았다.

2026년 1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규칙을 정리했다. 젠슨 황은 3월 투자자들에게 중국 고객의 주문을 받았고 H200 생산을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 5월 중순 로이터 보도로 승인 내용이 드러났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징둥닷컴 등 중국 기업 10곳 안팎이 H200 구매 허가를 받았다. 레노버와 폭스콘은 유통사로 승인을 받았다. 기업 한 곳이 살 수 있는 한도는 7만 5,000개였다.

그런데 허가가 난 지 몇 달이 지나도 중국에 도착한 칩은 한 개도 없었다. 이 교착을 풀려고 나선 사람이 젠슨 황이다. 2026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으로 가는 길에 알래스카에 들렀다. 원래 방중 대표단 명단에 없던 젠슨 황이 그곳에서 에어포스원에 올랐다. 트럼프가 직접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중국 수출길이 다시 열린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워싱턴의 대중 강경파는 거세게 반발했다.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 존 물레나는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여러 차례 서한을 보냈다. H200 수출을 막고 반도체 장비 통제를 강화하라는 요구였다. 하원 외교위원장 브라이언 매스트는 1월 22일 'AI 오버워치 법안'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의회가 AI 칩 수출 허가에 거부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다.

엔비디아의 처지는 묘했다. 워싱턴에는 수출 규제를 풀어 달라고 설득해야 했다. 베이징에는 미국 칩을 사도록 허락해 달라고 설득해야 했다. 엔비디아는 모든 수출을 막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해치고 외국 경쟁사만 돕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양쪽 정부 모두에게 동시에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4.4 중난하이의 빛장과 화웨이 어센드 육성

미국이 문을 열었을 때 빛장을 건 쪽은 중국이었다. 승인을 받은 중국 기업들은 구매를 미뤘다. 중국 정부가 기다리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신 화웨이 어센드 같은 국산 칩에 투자를 돌리라고 권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2026년 1월에는 반대 방향의 보도도 있었다. 중국 정부가 주요 기업들에 H200 주문을 모두 40만 개 넘게 준비시켰다는 내용이다. 그 뒤 방향이 바뀌었다. 로이터는 미국 쪽의 어떤 변화가 계기였다고 전했지만 그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중국이 걱정한 부분은 보안이다. 미국 정부가 25%를 받으려면 H200은 반드시 미국 땅을 거쳐야 한다. 중국은 그 과정에서 칩에 숨은 취약점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의심했다. 중국의 인터넷 규제기관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다. CAC는 이미 2025년 여름 엔비디아를 불렀다. H20에 위치 추적 기능이나 백도어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더 깊은 이유는 전략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내수와 기술 자립을 앞세운 '쌍순환' 전략을 이어왔다. 핵심 기술 표준을 중국이 쥐겠다는 '중국 표준 2035' 계획도 있다. 당장 성능 좋은 H200을 쓰면 편하다. 하지만 워싱턴이 언제든 밸브를 잠글 수 있는 관(管)에 다시 목을 매는 일이 된다. 중국은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국산 칩 생태계를 키우는 쪽을 골랐다.

8월 들어 작은 변화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바이트댄스와 텐센트가 H200을 각각 1만 개 정도 받았다는 내용이다. 허가 한도 7만 5,000개의 13% 수준이다. 나머지 물량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쥐고 있다고 한다. 기업이 H200을 사려면 건마다 NDRC 심사를 받아야 한다. 몇 개가 필요한지, 왜 국산 칩으로는 안 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NDRC는 허가받은 물량을 중국 본토 밖에서 쓰라고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쓰면 화웨이 칩과 국내 시장에서 부딪치지 않기 때문이다.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용으로 약 50만 개의 H200 재고를 쌓아 두었다는 보도도 있다.

미국 정부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9월 2일 중국이 H200을 사실상 사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지만 중국이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출 통제 완화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소량 인도

보도와 러트닉 발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다만 어느 쪽이든 허가 한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은 같다.

이 흐름에서 칩 거래의 주도권이 어디로 옮겨 갔는지 보인다. 수출 허가는 워싱턴이 내준다. 그러나 실제로 칩이 들어올지는 베이징이 정한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카드도 함께 쥐고 있다. H200을 안 사는 것 자체가 협상 수단이 되었다. 미국이 블랙웰 같은 최신 칩까지 풀어 주기 전에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4.5 증류 논란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의 조사

정상회담 직전 AI 기술전에 새 불씨가 붙었다. 이번에는 '증류(蒸溜, distillation)'였다. AI에서 증류란 성능 좋은 모델의 답을 대량으로 모아 다른 모델을 가르치는 기법이다. 자기 모델끼리 하면 흔한 훈련 방법이다. 남의 모델을 허락 없이 쓰면 이용 약관 위반이자 기술 도용 문제가 된다.

9월 9일 미국 정보·보안 기관 세 곳이 공동 경고문을 냈다.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사이버보안·기반시설보안국(CISA)이다. 중국 AI 기업 6곳이 미국 모델을 무단 증류했다는 내용이었다. 다음 날 중국 외교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안트로픽은 154쪽 분량의 위협 정보 보고서를 공개했다. 제목은 'AI 오용의 탐지와 대응'이다. 보고서는 중국 AI 기업 7곳을 지목했다. 알리바바, 문샷 AI, 딥시크, 즈푸, 미니맥스, 샤오미, 센스타임이다. 대상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수법은 이렇다. 중국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로 들어온 사용자 질문 일부를 몰래 클로드로 넘겼다. 그리고 클로드의 답을 모아 자기 모델 훈련에 썼다. 사용자들은 자기 질문을 미국 모델이 처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문샷 AI는 5월부터 7월 사이 2,300만 건이 넘는 대화를 클로드로 보냈다. 딥시크는 7월 중 14일 동안 1,210만 건 넘게 보냈다. 가장 많이 쓴 곳은 알리바바였다. 같은 기간 1억 5,100만 건이 넘었다.

미국 쪽의 시각은 분명하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만든 모델의 지식을 몰래 빼 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수출 통제와도 맞물린다. 칩을 막아도 모델의 답을 베껴 가면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건은 뜻밖의 방향으로 번졌다. 중국 CAC가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7개 기업 대표를 모두 불렀다. 여러 차례 조사 끝에 딥시크와 문샷 AI로 대상을 좁혔다. 조사관들은 두 회사 사무실을 찾아 경영진과 직원들을 면담했다.

CAC가 따지는 것은 기술 도용이 아니다. 데이터 유출이다. 사용자 질문이 클로드로 넘어갈 때 민감한 데이터도 함께 미국으로 갔을 수 있다. 중국 경찰과 군, 국가 관련 기업의 정보다. CAC는 이것이 중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정을 어겼는지 보고 있다. 아직 처벌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두 회사의 사정은 복잡해졌다. 딥시크는 유엔총회 기간 중 안전보장이사회에서 AI 위험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문샷 AI는 30억 달러 규모의 홍콩 상장을 비공개로 신청해 둔 상태였다. 규제 조사가 진행 중이면 상장 투자설명서에 이를 밝혀야 한다. 알리바바는 사내에서 클로드 코드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 사용자에게 백도어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AI 기술전에 위험이 두 겹으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지식이 새어 나간다고 본다. 중국은 자국의 민감 데이터가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본다. 같은 행위를 두고 한쪽은 도둑질, 다른 쪽은 유출로 부른다. 결국 두 나라 모두 AI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다.

4.6 두 개의 AI 생태계와 한국 반도체의 선택

9월 24일 워싱턴 정상회담의 AI 의제는 처음부터 좁았다. 러트닉 장관이 미리 밝혔듯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인 성과로 꼽은 것은 AI 사고 통보 창구다. 2024년의 핵무기 인간 통제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의 공동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이 원고를 쓰는 9월 24일 현재 정상회담은 진행 중이다. 합의문의 최종 문구는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회담장 밖에서는 두 개의 AI 생태계가 굳어지고 있다. 미국 쪽은 엔비디아의 칩과 쿠다(CUDA) 소프트웨어가 중심이다. 그 위에서 오픈AI, 안트로픽, 구글의 비공개 최상위 모델이 돌아간다. 중국 쪽은 화웨이 어센드 칩과 캔(CANN) 소프트웨어가 중심이다. 그 위에서 딥시크, 알리바바 큐원, 문샷 키미 같은 공개 가중치 모델이 돌아간다.

두 생태계는 확장 방식도 다르다. 미국은 동맹국에 AI 칩 수출 허가를 빠르게 내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가장 신뢰하는 수출 통제 파트너 등급으로 올라갔다. 중국은 값싼 공개 모델로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같은 글로벌 사우스를 파고든다. 딥시크 V4 Pro의 사용료는 입력 100만 토큰당 1.74달러다. 미국 칩을 못 쓰는 나라도 어센드 위에서 최상위급에 가까운 AI를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두 세계가 완전히 갈라진 것은 아니다. 딥시크 V4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서도 쓸 수 있다. 제3국을 거친 칩 밀수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중국 기업이 해외 클라우드로 미국 칩을 빌려 쓰는 길도 남아 있다. 종류 논란이 보여 주듯 모델의 답은 국경을 쉽게 넘는다.

이 두 생태계 사이에서 한국 반도체가 시험대에 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양쪽에 모두 발을 걸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핵심 공급사다. H200에도 HBM이 들어간다. 동시에 두 회사는 중국에 큰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 다렌에서 낸드를 만든다.

중국 공장의 운명은 해마다 워싱턴의 허가에 달려 있다. 미국은 2025년 8월 29일 두 회사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없앴다. VEU는 미국산 장비를 건마다 허가받지 않고 들여올 수 있는 포괄 허가였다. 효력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났다. 대신 미국은 연간 허가

제도를 만들었다. 두 회사는 해마다 필요한 미국 장비 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6년분 허가는 2025년 12월에 받았다.

문제는 이 허가가 2026년 말에 끝난다는 점이다. 2027년 허가가 나올지는 아직 모른다. 미중 무역 휴전의 12개월 시계와 겹치는 대목이다. 불안을 느낀 두 회사는 중국 식각 장비 업체 AMEC의 장비를 시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공장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장비의 부품과 수리 지원이 끊길 때를 대비한 예비책이다.

한국 기업의 셈법은 한쪽만 볼 수 없다. 미국이 중국에 칩을 더 팔게 하면 엔비디아의 HBM 주문이 늘어 한국 메모리가 이득을 본다. 반대로 중국 생태계가 자립에 성공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은 2024년 12월 HBM의 대중국 수출을 막았다. 한국 기업은 화웨이 칩에 HBM을 팔 수 없다. 화웨이는 중국 메모리 업체 CXMT 같은 국산 HBM을 키우려 한다. 중국 생태계가 커질수록 한국 기업이 들어갈 자리는 좁아진다.

이렇게 보면 한국이 둘 중 한 우주를 고르는 문제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매년 미국 장비 허가를 받아 내면서 중국 공장의 공급처를 넓혀야 한다. 그러면서 HBM 기술 우위도 지켜야 한다. 미중이 만든 AI 대화 창구는 사고를 막는 얇은 안전선이다. 그 아래에서 칩과 모델을 둘러싼 경쟁은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 그 경쟁이 12개월 뒤 어느 쪽으로 기울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 생태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처지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CNN Business, 2026년 9월 20일, "Bessent proposes AI safety notifications in talks with China ahead of Xi-Trump meeting", CNN, 뉴욕.

CNBC, 2026년 9월 20일, "Bessent calls meeting with China Vice Premier He Lifeng 'successful' ahead of Trump-Xi summit", CNBC, 뉴욕.

Bloomberg, 2026년 9월 21일, "US, China Agree to Launch AI Dialogue, Advance Trade Talks Ahead of Summit", Bloomberg L.P., 뉴욕.

The Japan Times(AFP-JIJI), 2026년 9월 21일, "Bessent hails 'very successful' China talks on AI, trade", 도쿄.

The Hill, 2026년 9월 22일, "AI safety concerns add urgency to Trump-Xi summit in Washington", 워싱턴.

TIME, 2026년 9월 22일, "The Narrow Path to a Trump-Xi AI Deal", 뉴욕.

CNBC, 2026년 9월 23일, "Trump-Xi summit puts AI safety talks on the table but neither side wants to slow down", 뉴욕.

The Diplomat, 2026년 9월 23일, "America's AI Safety Dilemma and the Trump-Xi Summit", 워싱턴.

Wikipedia, "2026 in artificial intelligence" 항목(2026년 7월 21일 오픈AI, 9월 18일 구글 사례), 2026년 9월 확인.

4.2 참고문헌

DeepSeek, 2024년 12월, "DeepSeek-V3 Technical Report", arXiv.

Reuters, 2026년 4월 24일, DeepSeek V4 미리보기 공개 보도(Let's Data Science, 2026년 5월 25일 재인용).

Pandaily, 2026년 5월, "DeepSeek V4 Completes Full Adaptation to Huawei Ascend".

Huawei Central, 2026년 6월 10일, "DeepSeek V4 and Huawei Ascend: A powerful day 0 partnership".

Tech Insider, 2026년 6월 4일, "DeepSeek V4 on Huawei Ascend: 1.6T MoE, \$1.74 Token Price".

DEV Community, 2026년 5월 20일, "DeepSeek V4 on Huawei's Ascend 950: A Real Stress Test for China's AI Chip Ecosystem".

김경진, 2026년, 《beijing-2026-summit-kimkj》, 제10장 AI 패권 경쟁.

4.3 참고문헌

CNBC(Reuters), 2026년 5월 14일, "U.S. clears H200 chip sales to 10 China firms as Nvidia CEO looks for breakthrough".

The Next Web, 2026년 5월 14일, "US clears H200 sales to 10 Chinese firms, but not a single chip has shipped".

Engadget, 2026년 5월 14일, "US reportedly allows 10 Chinese companies to buy NVIDIA's coveted H200 AI chips".

The Register, 2025년 12월 31일, H200 대중국 판매와 25% 수익 배분 보도.

East Asia Forum, 2026년 3월 11일, "US chip export controls have cooled down".

U.S. News & World Report, 2026년 9월 21일, "Trump and Xi Meet in Washington Under Shadow of AI, Trade and Rare Earth Tensions".

4.4 참고문헌

Tech Times, 2026년 8월 20일, "Nvidia H200 Chips Enter China at 13% of Quota; Beijing, Not Washington, Controls Rest".

Crypto Briefing, 2026년 7월 8일, "China plans to allow top AI firms to buy limited Nvidia H200 chips".

CNBC, 2026년 9월 2일, "G20 tech takeaways: Lutnick pitches adoption of U.S. AI, pushes data center buildout".

Asia Today, 2026년 9월 4일, "Lutnick says easing export controls will not be addressed at U.S.-China summit".

Export Compliance Daily, 2026년 9월 4일, "Lutnick: Trump-Xi Won't Talk Export Controls".

4.5 참고문헌

Anthropic, 2026년 9월 10일, "Detecting and countering misuse of AI"(위협 정보 보고서).

The Next Web, 2026년 9월 22일, "China is investigating DeepSeek and Moonshot, The Information reports".

Bloomberg, 2026년 9월 22일, "China Probes DeepSeek, Moonshot Over Data Security: Information".

AI Weekly, 2026년 9월 22일, "China's CAC Probes DeepSeek, Moonshot Over Claude Data Routing".

Quartz, 2026년 9월 23일, "China probes DeepSeek, Moonshot over user data sent to Anthropic".

Cryptopolitan, 2026년 9월 22일, "China probes DeepSeek and Moonshot over data routed to Anthropic's Claude".

4.6 참고문헌

SK hynix Inc., 2026년, Form F-1(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VEU 취소와 연간 허가 관련 위험 요인 기재.

Tom's Hardware, 2025년 12월 30일, "U.S. grants Samsung and SK hynix 2026 licenses for chipmaking tool shipments to China".

TrendForce, 2026년 8월 5일, "Samsung, SK hynix Reportedly Mull AMEC's Tools as China Fab Backup".

The Diplomat, 2026년 8월 10일, "Samsung, SK Hynix Tests of Chinese Chip Tools Expose Cracks in US Export Strategy".

CASRAI, 2026년 9월, "US-China AI Talks Ahead of the Trump-Xi Summit".

Punchbowl News, 2026년 8월 19일, "Dems question Trump easing UAE export controls".

김경진, 2026년, 《uschina-conflict-2026-kimkj》, 제10장 AI 패권 경쟁과 한국 반도체.

제5장 대만 해협과 140억 달러 무기 판매: 시진핑의 레드라인

5.1 두 장의 발표문: 백악관의 침묵과 베이징의 경고

2026년 5월 14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주 앉았다. 비공개 회담은 2시간 15분 동안 이어졌다. 회담이 끝나자 두 나라는 각자 발표문을 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읽으면 같은 회의를 적은 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

백악관 발표문은 짧았다. 경제 협력 확대,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중국의 대미 투자가 앞에 나왔다. 펜타닐 원료 차단과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가 뒤를 이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문장도 들어 있었다. 대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 발표문은 사정이 달랐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잘 다루면 두 나라 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된다고 했다. 잘못 다루면 두 나라가 부딪치고 충돌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관계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진다는 경고였다.

이어서 나온 말이 수화불용(水火不容)이다. 물과 불은 한곳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과 해협의 평화가 바로 그런 사이라고 했다.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일이 두 나라의 가장 큰 공약수라고도 했다. 끝으로 미국이 대만 문제를 각별히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중국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 앞에서 충돌이라는 말을 직접 꺼내는 일은 흔하지 않다. 관영 매체에서는 자주 보는 표현이지만, 지도자 본인의 입에서 나온 점이 달랐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른 시각도 있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러시 도시 연구원이 그런 경우다. 그는 시 주석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해 온 말과 수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봤다.

미국 쪽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NBC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가 회담에서 나왔다고 확인했다. 중국은 늘 이 문제를 꺼내고, 미국은 늘 입장을 밝힌 뒤 다음 의제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현재 미국의 대만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단에서 기자들이 대만 질문을 여러 번 던졌지만 답하지 않고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입을 열었다. 중국과 대만 모두 열을 식혀야 한다고 했다. 누군가 독립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만5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전쟁을 해야 하느냐는 말을 덧붙였다. 공식 문구는 그대로였지만, 말의 방향은 베이징이 듣고 싶어 하는 쪽에 가까웠다.

시 주석은 이 회담에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새 틀을 내놓았다. 무역, 기술, 기후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고 경쟁은 관리할 수 있는 선에 묶어 두자는 구상이다. 이 틀의 바닥에는 미국이 대만이라는 선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중국이 약속한 보잉기와 농산물 구매,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는 조건이 붙은 거래에 가깝다. 미국이 대만에서 선을 넘으면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5.2 140억 달러 패키지와 레이건의 6항 보증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2월 대만에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한 번에 승인한 대만 무기 판매로는 역대 최대였다. 하이마스 다연장로켓, M109A7 자주포, 재블린과 토우 대전차미사일이 들어 있었다. 대만 입법원은 2026년 3월 이 가운데 약 90억 달러어치의 구매 계약 서명을 승인했다.

두 번째 패키지는 약 140억 달러 규모다.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기술이 중심이다. 대만이 요청했고, 미국 정부 안의 검토는 2026년 초에 끝났다. 남은 단계는 의회 통보였다. 백악관은 이 마지막 단계를 밟지 않았다. 흔히 의회 승인만 남았다고 알려졌지만, 정확히는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이 서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점점 수위가 높아졌다. 2월에는 시 주석과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곧 결정하겠다고 했다. 방중 이틀 전인 5월 11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는 시 주석과 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회담을 마친 뒤 폭스뉴스에서는 이 패키지를 보류하고 있으며 중국에 달렸다고 했다. 이어서 솔직히 말해 아주 좋은 협상 카드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1982년 레이건 행정부가 대만에 준 6항 보증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6항 보증에는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를 두고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들어 있다. 이후 역대 대통령은 이 약속을 판례처럼 지켜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시 주석과 무기 판매를 자세히 논의했다고 인정했다. 6항 보증에 대해서는 1982년은 한참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중국이 내세우는 근거는 같은 해에 나온 8·17 공동성명이다. 이 성명에서 미국은 대만에 파는 무기의 성능과 수량을 늘리지 않고 점차 줄이겠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같은 시기 내부 메모에 조건을 달아 두었다. 무기 감축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만 유효하다는 내용이다. 베이징은 이 조건은 빼고 감축 약속만 앞세운다. 그사이 중국의 군비는 해마다 늘었다.

행정부 안에서도 확인이 나왔다. 해군장관 대행 헝 카오는 대만 무기 판매를 일시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몇 시간 만에 반박했다. 미국의 무기 판매가 지역 분쟁을 막는 가장 중요한 억지 수단이라고 했다. 대만은 결코 희생되거나 거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9월 23일,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루비오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매킨 전 원내대표와 코닌, 킬리스, 머카우스키 의원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대만을 아주 좋은 협상 카드라고 부른 데 우려를 나타냈다. 서한은 멈춰 선 항목을 하나씩 적었다. 의회가 배정한 대외군사금융 3억 달러가 집행되지 않았다. 국방부도 10억 달러를 쓰지 않고 있다. 여기에 140억 달러 판매 승인 보류가 더해졌다.

같은 날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담담하게 반응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대만의 자위 능력을 거둬 지지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무기 판매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어 판매를 아예 없앨 수는 없다. 다만 서명하는 시점은 대통령이 고를 수 있다. 서명을 미루는 동안 중국은 보잉기, 대두, 원유 구매와 희토류 유예로 값을 치른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둔 대통령에게 이 대가는 유권자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성과다. 대만 쪽에서 보면 자기 안보가 남의 거래 장부에 한 줄로 올라간 셈이다.

5.3 서명하지 않은 이유: 비어 가는 무기고, 깎인 예산, 옮겨 가는 반도체

첫째 이유는 미군 무기고 사정이다. 미국은 2026년 2월 28일 이란 공습 작전 '에픽 퓨리'를 시작했다. 전쟁은 일곱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느라 미군은 방공 요격미사일을 대량으로 썼다. CNN은 8월 초 내부 재고 보고서를 아는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드 요격미사일은 전쟁 전 재고의 약 5분의 4를 썼다.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절반가량을 썼다.

추정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패트리엇 소진율을 3분의 2로 보는 분석도 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3분의 1 가까이 썼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전쟁 전 재고를 패트리엇 약 2,200발, 사드 452발로 추정했다. 재고 회복 시점은 사드와 패트리엇이 2029년, 토마호크가 2030년으로 내다봤다.

생산 능력이 발목을 잡는다. 록히드마틴은 그동안 사드 요격미사일을 한 해 96발 정도 만들었다. 6월에 350억 달러 규모의 7년 계약을 맺고 연 400발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래도 공장을 키우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 헤리티지재단은 올해 1월 보고서에서 대만 유사시 고가 요격미사일이 며칠 만에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이란 전쟁 전 재고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희토류 문제가 여기에 겹친다. 미사일 유도 장치와 레이더에 쓰는 영구자석에는 디스프로슘, 터븀 같은 중희토류가 들어간다. 이 소재의 정제는 대부분 중국이 쥐고 있다. 미국이 무기고를 다시 채우려면 중국산 소재가 필요한 구조다. 이런 형편에서 대만에 첨단 무기를 서둘러 보내며 중국과 맞설 여유는 크지 않았다.

둘째 이유는 대만 내부 정치다. 정상회담 엿새 전인 5월 8일, 대만 입법원이 특별 국방예산을 통과시켰다. 라이칭더 정부가 낸 안은 8년간 1조2,500억 대만달러, 약 400억 달러였다. 입법원을 장악한 국민당과 민중당은 이를 7,800억 대만달러, 약 248억 달러로 줄였다. 원안보다 40% 가까이 깎인 셈이다.

깎는 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하이마스, 자주포, 대전차미사일처럼 미국에서 사는 무기 예산은 살렸다. 반면 드론을 비롯한 국내 방산 사업은 대부분 뺐다. 워싱턴의 눈치는 보되, 대만 스스로 버티는 힘을 키우는 사업은 접은 결과다. 삭감을 이끈 인물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해 온 정리원(鄭麗文) 국민당 주석이다. 미 국무부는 나머지 사업 예산을 더 미루면 중국에 양보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이 일은 워싱턴 안의 회의론에 힘을 보탤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대만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해 왔다. 대만 입법원이 국방예산을 두고 다투는 모습은 그 주장에 근거를 준 셈이다. 시 주석 쪽에서는 라이칭더 정부가 대만 주류 여론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대만 내부의 분열은 이 논리가 파고들 틈이 되었다.

셋째 이유는 반도체다. 대만의 안보를 떠받쳐 온 논리 가운데 하나가 '실리콘 방패'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 대부분을 대만의 TSMC가 만들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버릴 수 없다는 논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구조를 바꾸는 데 힘을 쏟았다.

2026년 1월 미국과 대만은 무역·투자 합의를 맺었다. 대만 기업은 미국에 최소 2,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한다. 대만 정부는 2,500억 달러의 신용보증을 선다. 미국은 대만에 매기던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췄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대만 반도체 기업에는 100%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경고도 따라붙었다.

TSMC는 7월에 애리조나 투자를 1,000억 달러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 투자 총액은 2,650억 달러가 되었다. 애리조나에 들어설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 시설은 모두 12곳이다. 2나노 이하 공정 공장도 짓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방패가 녹아내렸다고 보기는 이르다. TSMC는 가장 앞선 2나노 공정을 여전히 대만 본토에서 돌린다. 애리조나 공장은 4나노 칩 생산을 시작한 단계다. 2나노 공정은 2030년 무렵에야 목표로 잡혀 있어 4~5년의 격차가 남는다. TSMC 재무책임자도 최첨단 기술 개발은 대만에서 계속한다고 말했다. 방패는 얇아지고 있지만 아직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대만 섬 자체의 값어치를 전보다 낮게 보는 시각이 생긴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5.4 동사 하나의 싸움: '지지하지 않는다'와 '반대한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 왔다. 현상 유지를 바란다는 뜻이다. 대만이 독립 쪽으로 움직일 때 미국이 나서서 막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 모호함이 대만과 중국 모두를 붙잡아 두는 장치였다.

베이징은 이 동사를 '반대한다'로 바꾸라고 요구해 왔다. CFR의 데이비드 섹스 연구원은 중국 측 관리와 학자들이 몇 달 전부터 이 요구를 흘렸다고 전했다.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언젠가의 통일을 지지해 달라는 주문까지 나왔다.

두 동사의 차이는 한 단어지만 담긴 뜻은 크다. '반대한다'는 미국이 중립에서 벗어나 중국 편에 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영국 채텀하우스는 이런 문구 변경이 상징처럼 보여도 결과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대만 국민에게는 저항할 이유를 꺾는 신호가 된다. 일본과 필리핀 같은 동맹국에는 미국의 안보 우산이 접힐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5월 회담의 공식 문서에는 이 동사가 들어가지 않았다. 워싱턴의 대만 전문가들은 이 점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은 문서보다 앞서 나갔다. 누군가 독립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상 반대에 가깝다고 해석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베이징은 워싱턴 회담을 앞두고 다시 한번 공개 선언을 요구했다.

이 흐름을 누구보다 초조하게 지켜본 나라가 일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025년 11월 국회에서 답변 하나로 파장을 일으켰다.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다. 중국은 이 발언에 거세게 반발했다. 일본을 겨냥한 정치·경제 보복이 이어졌고, 그 안에는 희토류 수출 제한도 들어 있었다. 로이터는 6월에 중국의 대일 중희토류 수출이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마저 대만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까 걱정했다. 미국이 경제적 양보를 받는 대가로 대만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묵인하는 대거래가 도쿄의 가장 큰 걱정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시진핑 회담 이틀 전인 9월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유엔총회 기간에 맞춘 회담은 30여 분 동안 이어졌다.

두 정상은 인공지능, 반도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분야의 협력을 계속 넓히기로 했다. 동맹의 억지력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강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대만 문제에서 일본이 원하는 약속을 받았는지 알기 어렵다. 동맹이 굳건하다는 확인과 대만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다른 이야기다.

5.5 한국이 읽어야 할 신호: 주한미군, 북한, 실용외교의 한계

대만 문제가 미중 거래의 한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한국도 남의 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서류 속 개념이 아니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의 요격미사일이 빠르게 줄었다. 그러자 미국은 3월에 한반도에 있던 패트리엇 전력을 중동으로 옮겼다. 사드 반출 계획까지 보도되었다. 주한미군 장비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은 미국이 통보만 하면 되는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미군 수뇌부의 말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025년 11월 방한 때 역내 다른 비상사태에 대응할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같은 해 12월 서울의 한 포럼에서 발언했다. 한국은 한반도 위협에만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주한미군은 남북을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를 누리집에 올리기도 했다. 서울에서 평양뿐 아니라 베이징, 타이베이, 마닐라까지의 거리를 적은 지도다.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나면 오산과 평택의 미 공군 전력이 대만 방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중국이 이들 기지를 출격 기지로 보고 압박할 위험이 생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각 당사국이 관할하는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을 대상으로 한다. 대만 해협 분쟁은 조약상 한국의 자동 개입 대상이 아니다. 조약이 한국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한국 땅에 있는 미군 기지가 한국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북한 변수는 대만 변수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미중이 대만을 두고 크게 부딪치면 북한은 그 틈을 파고든다. 중국이 북한을 미국 압박 수단으로 쓸 가능성도 커진다. 거꾸로 미중이 대만을 두고 조용히 타협하면, 미국의 관심에서 한반도 확장억제가 뒤로 밀릴 수 있다. 어느 쪽이든 한국의 안보 부담은 커진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워 왔다. 5월 13일 베이징 회담 하루 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허리핑 부총리와 베센트 재무장관을 차례로 만났다. 두 사람은 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위해 서울에 와 있었다. 이 대통령은 베센트 장관에게 핵심광물 공급망과 외환시장 협력을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오른 때였다. 허리핑 부총리에게는 경제, 산업, 문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자고 당부했다.

이런 외교는 경제 의제에서는 통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협상 무대로 쓰면서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대만 유사시는 경제 의제와 성격이 다르다. 미국은 기지와 병력을, 중국은 중립과 불개입을 요구할 것이다. 두 요구를 동시에 들어줄 방법은 없다. 실용외교의 공간은 대만 문제 앞에서 아직 시험받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라고 부른 장면은 한국에도 경고가 된다. 미국의 안보 공약이 단기적인 경제 이익과 맞바꿀 수 있는 항목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그 목록에서 빠진다는 보장은 없다. 한국이 준비할 일은 분명하다. 대북 억지에 필요한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 주한미군 전력의 빠져나갈 때의 협의 절차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 줄여야 한다.

5.6 워싱턴 회담과 2027년의 시계

9월 23일 시 주석이 워싱턴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스 공군기지 활주로까지 나가 시 주석을 직접 맞았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 지도자에게 이런 예우를 한 것은 10여 년 만이다.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다. 백악관 방문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은 24일에 열린다.

회담 의제는 무역 휴전 만료, 인공지능, 희토류, 이란 전쟁까지 넓게 걸쳐 있다. 대만을 둘러싼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느냐가 첫째다. 140억 달러 패키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둘째다. 베이징은 패키지를 아예 취소하라고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카드를 쉽게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쥐고 있어야 값어치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패키지 하나보다 크다. 미국의 대만 정책을 문구와 관행 양쪽에서 조금씩 옮겨 놓는 것이다. 보니 글레이저는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베이징이 대만 문제에서 긴 호흡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둘러 무력을 쓰기보다 미국의 공약이 스스로 약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5월 이후의 흐름은 이 분석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시계는 2027년을 가리킨다. 2027년 8월 1일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다. 미국 정보당국은 오래전부터 시 주석이 이때까지 대만 작전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평가해 왔다. 같은 해 가을에는 제21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열린다. 시 주석의 네 번째 임기가 걸린 자리다. 부산에서 맺은 1년짜리 무역 휴전은 올해 11월에 끝난다. 이를 12개월 늘리면 새 시한도 2027년 가을과 겹친다.

미국 쪽 시계도 돌고 있다.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면 워싱턴의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의회 안에는 대만 무기 판매를 서두르라는 초당적 압력이 쌓여 있다. 휴전이 흔들리면 서랍 속 140억 달러 서류는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압박 수단이 된다. 대만 입장에서는 무기 판매가 멈춘 지금보다, 판매가 거래 조건으로 굳어지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다.

5월부터 9월까지의 흐름을 보면 대만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두 정상은 이 문제를 서랍에 넣어 두고 다른 거래를 먼저 챙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에 내세울 성과를 얻었다. 시 주석은 대만을 둘러싼 미국의 공약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 시간을 얻었다. 서랍은 언제든지 다시 열릴 수 있다. 그때 대만 해협의 쉼법은 미중 두 나라만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안보

계산서까지 함께 바꿔 놓을 것이다.

참고자료

5.1

The White House, 2026.5.14, 트럼프 · 시진핑 베이징 회담 발표문(Readout).
중국 외교부, 2026.5.14,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 발표문.
CNBC, 2026.5.15, "Trump says China and Taiwan should 'both cool it'".
CNBC, 2026.5.16, "Why Taiwan became the defining issue in the Trump-Xi talk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6.5.15, "Media Briefing: Making Sense of the Trump-Xi Summi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6.5.15, "Beyond Taiwan, a 'Decent Peace' at the Trump-Xi Summit".
France 24, 2026.5.15, "Trump warns Taiwan against declaring independence from China after meeting Xi".

5.2

Reuters, 2026.3.13, "Taiwan parliament authorises signing of stalled \$9 billion US arms deals".
NPR, 2026년 초, 대만 무기 판매 2건 지연 보도(의회 통보 미실시).
Global Taiwan Institute, 2026.5.22, "How Taiwan Fared during the 2026 Trump-Xi Summit".
Fox News, 2026.5.18, "Trump holds \$14 billion Taiwan weapons package as China 'negotiating chip'".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6.5.28, "China Shouldn't Get a Veto on Taiwan Arms Sales".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26.6.3, "The Trump Administration's Taiwan Arms Freeze Is a Gift to Xi Jinping".
Reuters, 2026.9.23,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의 대만 안보 예산 집행 촉구 서한 보도.
AP, 2026.9.23, "The Latest: China's Xi to kick off visit to Washington".

5.3

CNN, 2026.8.4, "Nearly 80% of interceptors for a key missile defense system depleted".
Fox News, 2026.8.4, 이란 전쟁과 미군 무기 재고 소진 보도.
ABC News, 2026.8.7, "Crucial US missile stockpiles 'extremely low'".
The Soufan Center, 2026.8.28, IntelBrief "Depleted U.S. Stockpiles Raise Strategic Risks".
Taiwan News, 2026.5.8, "Taiwan legislature passes opposition NT\$780 billion special defense budget".
FAPA, 2026.5.11, 대만 입법원 축소 특별국방예산 통과와 미 국무부 반응.
Jamestown Foundation, 2026.5.29, "Taiwan's Special Defense Budget Bill Passes with Drastic Cuts".
War on the Rocks, 2026.6.4, "Between Beijing and the Budget".
CNBC, 2026.1.15, "Taiwan will invest \$250B in U.S. chipmaking under new trade deal".
CNBC, 2026.1.19, "What the U.S.-Taiwan deal means for the island's 'silicon shield'".
미국 상무부, 2026.7, TSMC 1,000억 달러 추가 투자(총 2,650억 달러) 발표.

5.4

Chatham House, 2026.5.19, "Trump's approach to Taiwan could jeopardize its future".
Asia Times, 2026.9.22, "Takaichi scrambles to reach Trump before he sees Xi".
Japan Today, 2026.9.22, "Japan's Takaichi meets with Trump ahead of U.S.-China summit".
The Korea Post, 2026.9.23, 다카이치 · 트럼프 뉴욕 회담 보도.
서울경제 영문판, 2026.9.23, "Takaichi Meets Trump Days Before U.S.-China Summit".

5.5

연합뉴스TV, 2026.3.11, 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과 전략적 유연성 보도.

연합뉴스, 2026.1.4, 닛케이 인용 주한미군 역할 확대론 보도.

머니투데이, 2026.5.13, 이재명 대통령 베센트·허리핑 접견 보도.

SBS Biz, 2026.5.13, 이재명 대통령 미중 고위급 인사 연쇄 접견 보도.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제3조.

5.6

The Japan Times, 2026.9.21, "China confirms Xi's first trip to U.S. in nearly three years".

CNBC, 2026.9.23, "Trump faces Xi as strains with allies complicate U.S. pressure on China".

Business Standard, 2026.9.18, "What to expect from the Trump-Xi summit".

WBUR Here & Now, 2026.9.22, "Trump and Xi to meet in Washington with Taiwan in focus".

Foreign Affairs, 2026.5, Bonnie Glaser 외, "Why China Waits".

제6장 중동 호르무즈 해협과 지정학적 대거래

6.1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배럴당 118달러까지 오른 유가와 미국의 곤경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미국이 붙인 작전명은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다. 목표는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그리고 이란 지도부였다.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 공습으로 숨졌다. 뒤는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었다.

워싱턴은 짧은 전쟁을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주 안팎이면 전쟁이 끝난다고 내다봤다.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정권을 흔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가는 길을 끊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중국의 에너지 약점을 건드려 협상력을 얻으려 한 셈이다.

이 계산은 빗나갔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무너지지 않았다. 미군과 정면으로 맞붙지도 않았다. 대신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다. 전쟁 전에는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약 5분의 1이 이 물길을 지났다.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도 이곳을 거쳐 세계로 나간다.

봉쇄 수단은 값싸고 다양했다. 대함미사일을 단 고속정이 해협 입구를 돌았다. 자폭 드론이 상선과 군함을 함께 노렸다. 수로 곳곳에 기뢰를 뿌렸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미 해군이 요격한 대함 순항미사일 가운데 중국제 CM302가 섞여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CM302는 중국 YJ12 미사일의 수출형이다. 중국은 이 미사일을 항공모함 공격용으로 홍보해 왔다.

이란이 노린 것은 항공모함 격침이 아니었다. 해운 보험료를 끌어올려 상선이 스스로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 이 계산은 들어맞았다. 전쟁 위험 보험료가 치솟자 선주들은 배를 해협 밖에 묶어 두었다. 이란은 3월 18일 자신들이 정한 '안전 항로'를 발표했다. 3월 말에는 통행 허가제를 시작했다. 허가 없이 지나려던 컨테이너선 세 척을 막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박 중개업계는 이란 라라크섬 인근 항로의 통행료를 적당 평균 200만 달러로 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 사태를 원유 시장 역사상 최대의 공급 차질로 규정했다. 5월 중순 기준으로 페르시아만에서 하루 약 1천만 배럴의 수출이 사라졌다. 세계 소비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이다.

유가는 곧바로 반응했다. 3월 첫째 주 브렌트유는 한 주 만에 28% 올랐다.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 폭이다. 3월 18일 이란은 카타르 라스라판 LNG 단지를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카타르 LNG 생산 능력의 17%가 멈췄다.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은 140% 넘게 뛰었다. 3월 31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118.35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4월 8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발표했다. 그래도 해협 통행량은 전쟁 전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파키스탄에서 열린 협상은 합의 없이 끝났다. 미국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배를 막는 해상 봉쇄로 맞섰다. 6월 17일 두 나라는 상선 통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란은 상선이 자국 영해를 지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오만 쪽 연안 항로로 유조선을 호위했다. 이란이 호위받는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합의는 깨졌다.

유가는 이 흐름을 따라 오르내렸다. 휴전과 협상 기대 속에 7월 1일 브렌트유는 71달러대로 내려왔다. 7월 12일 혁명수비대가 해협 전면 봉쇄를 다시 선언했다. 미국도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 7월 17일에는 요르단의 미 공군기지에 이란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 이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졌다. 4월 휴전 이후 첫 미군 전사자였다.

9월 들어 해협의 교전은 더 거칠어졌다. 미군과 혁명수비대는 서로 상대편 유조선을 공격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사우디 남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 사우디는 홍해 쪽으로 원유를 빼내던 동서 송유관을 한때 멈췄다. 이라크 쪽에서 날아온 드론이 송유관을 때렸기 때문이다. 9월 14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107.82달러까지 올랐다. 9월 23일에는 100달러 안팎에서 움직였다.

미국 안의 사정도 나빠졌다. 3월 말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 휘발유 값은 갤런당 6달러를 넘었다. 9월 초 노동절 연휴 직전 전국 평균은 갤런당 4.14달러였다. 1년 전보다 1달러 가까이 비싸고, 노동절 기준 역대 최고치다. 로이터와 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3%까지 내려갔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백악관에는 무거운 숫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을 "섬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연설에서 중간선거 직후 이란과 합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사 압박과 협상 신호를 한꺼번에 보낸 것이다. 워싱턴은 이란에 영향력을 가진 나라를 찾아야 했다. 그 나라가 중국이다.

6.2 중국의 '선택적 통행'과 이란 석유 생명선: 위안화후호와 산둥 티팟 정유사

봉쇄가 이어지던 4월, 오만만 앞바다에는 초대형 유조선(VLCC) 수십 척이 닻을 내리고 있었다. 모두 원유를 가득 실은 채 통항 재개를 기다렸다. 그 사이로 중국 국영 해운사의 배들이 먼저 해협을 빠져나갔다.

4월 11일 중국 국영 코스코(COSCO) 소속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이 해협을 통과했다. 해운 전문지 로이즈 리스트는 이를 중국 국영 유조선의 첫 통과로 기록했다. 같은 주말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결렬됐다.

상징적인 장면은 5월 13일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하던 날이다. 코스코 소속 위안화후(Yuan Hua Hu)호가 이라크산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싣고 해협을 지났다. 이 배는 중국 시노펙의 무역 자회사 유니펙이 빌려 쓰는 배다. 선박 추적 자료를 보면 이 배는 혁명수비대가 통제하는 북쪽 항로를 택했다. 통행료는 내지 않았다. 항해 중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다 켜기를 되풀이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중국 선박 약 30척이 혁명수비대와 조율해 해협을 지났다고 전했다.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이를 호르무즈 관리의 새 장이라고 불렀다. 외교가는 이런 구조를 '선택적 통행(Selective Transit)'이라 부른다. 이란이 우호국 선박을 골라 내보내는 방식이다. 이란은 4월 초 이라크를 "형제국"이라 부르며 통행 제한에서 빼 주었다. 파키스탄과도 원유와 LNG 운송 합의를 맺었다. 3월 중순에는 위안화로 거래한 원유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다만 중국 배라고 모두 통과한 것은 아니다. 3월 27일 코스코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두 척이 해협 돌파를 시도했다. 두 배는 선박자동식별장치로 중국 선적과 중국 선원을 알렸지만 결국 되돌아갔다. 중국 선박의 통행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면제가 아니었다. 외교부장과 주이란 대사의 공식 요청 같은 고위급 교섭이 필요했다.

이 구조의 바탕에는 돈이 있다. 중국은 이란 원유 수출량의 80~90%를 사들인다. 업계 추산으로는 하루 130만~160만 배럴 수준이다. 구매자는 주로 산둥성의 독립 민간 정유사, 이른바 '티팟(Teapot)'이다. 이들은 크게 할인된 값에 이란 원유를 산다. 결제는 위안화나 물물교환으로 한다. 달러 결제망을 거치지 않으니 미국 제재가 닿기 어렵다.

이란은 국제 금융통신망(SWIFT)에서 쫓겨난 뒤 중국의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을 쓴다. 원유는 먼바다에서 배끼리 옮겨 싣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감춘다. 이런 일을 하는 낡은 유조선 무리를 흔히 '그림자 선단'이라 부른다.

미국은 이 고리를 끊으려 했다. 4월 미국 정부는 중국 은행들에 경고를 보냈다. 이란 원유를 사는 소형 정유사의 거래를 도우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이 이란 원유를 산 중국 정유사 다섯 곳을 제재하자 중국 상무부가 맞섰다. 이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낸 것이다. 자국 기업에 법적 방패를 세운 셈이다.

8월 24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새 제재 계획을 발표했다. 이름은 '경제적 추방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이다. 이란을 돕는 약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중국 본토와 홍콩의 조달, 금융, 해운 중개업체가 여기에 들어갔다. 대형 중국 은행은 빠졌다. 베센트 장관은 세계 금융 체계를 흔들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누구도 미국 제재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승인 없는 일방 제재라며 반발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 봉쇄선 밖에서 이란이 중국에 팔 수 있는 원유가 약 3천만 배럴 남았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비축유로 충격을 버텼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5년 말 중국의 전략 비축과 국영기업 재고를 약 14억 배럴로 추산했다. 세계 최대 규모다. 중국은 2026년 1~2월에 원유를 하루 1,199만 배럴씩 들여왔다. 1년 전보다 15.8% 늘어난 양이다. 분석가들은 중동 위험에 앞서 재고를 쌓은 결과로 본다.

3월 초 중국 정부는 주요 정유사에 휘발유와 경유의 신규 수출 계약을 멈추라고 지시했다. 공식 전략비축유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기업 재고를 먼저 풀었다. 6월 하순까지 중국의 전략비축유는 거의 줄지 않았다.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원유와 늘어난 전기차도 충격을 덜어 주었다.

중국과 이란의 연결은 원유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 위성영상 업체 미자르비전(MizarVision)은 중동 미군 기지의 분석 영상을 공개해 왔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이 영상을 표적 선정에 썼다고 의심한다. 미국은 미자르비전을 비롯한 중국 위성 업체들을 제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월 11일 새로운 보도를 내놓았다. 7월 요르단 기지 공격 전후로 중국 업체가 이란에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넘겼다는 내용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가 직접 관여했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중국은 증거를 대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를 두고 시 주석이 꽤 합리적으로 처신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두 가지를 손에 쥐고 협상장에 앉았다. 이란에 대한 영향력과, 오래 버틸 수 있는 비축유다. 다만 이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 전쟁 초기 중국은 원유와 LNG 선박 공격을 멈추라고 이란을 압박했다. 이란은 그 뒤에도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했다. 이란은 중국의 대리인이 아니라 제 계산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해협의 열쇠는 테헤란과 베이징이 함께 쥐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6.3 백악관 발표문과 베이징 발표문의 비대칭: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한다"와 침묵

5월 14일 베이징 정상회담이 끝나자 양국은 각자 회담 발표문을 냈다. 두 문서가 이란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달랐다.

백악관 발표문은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고 적었다. 문구는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한다(must remain open)"였다.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서라는 설명이 붙었다.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도 두 정상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해협 의존을 줄이려고 미국산 원유를 더 사고 싶어 한다는 문장도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발 더 나갔다. 시 주석이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말도 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NBC 인터뷰에서 다른 결의 설명을 내놓았다. 중국이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제도에 반대하며 이는 미국 입장과 같다고 했다. 동시에 미국이 이란 문제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 측 발표문은 이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백악관 발표문에 없던 대만 문제를 길게 다뤘다. 한쪽은 이란을 앞세우고 다른 쪽은 대만을 앞세운 셈이다.

이 비대칭은 중국이 치른 비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란 핵무장 반대는 중국이 오래 지켜 온 입장이다. 해협 개방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 가장 이로운 일이다. 통행료 반대도 중국 선박의 이익과 맞아떨어진다. 중국은 원래 원하던 것을 문서로 확인해 주었다. 그 대가로 관세 휴전 연장과 기술 제재 협상의 동력을 얻었다. 외교가에서 '비용 없는 양보(Costless Concession)'라는 말이 나온 까닭이다.

미국산 원유 구매도 비슷하게 읽힌다. 중국 정유사들은 무역전쟁 탓에 2025년 6월부터 미국산 원유 수입을 멈췄다. 전쟁이 터지자 3월부터 수입 재개를 검토했다. 4월에는 하루 약 60만 배럴의 미국산 원유가 중국행 유조선에 실릴 예정이라는 선박 자료가 나왔다. 2018년 1월에 세운 월간 최고치인 하루 약 47만 배럴보다 많은 양이다. 정상회담 전에 이미 시작된 흐름을 백악관 발표문이 합의처럼 담은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중동 공백을 메우는 일이 급했다. 미국산 원유 구매는 미국에 주는 선물이면서 중국 자신의 에너지 대책이었다.

시장에는 도움이 됐다. 미국은 원유 수출을 늘렸고 중국은 수입을 줄였다. 페르시아만에서 하루 1천만 배럴이 사라진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5월 14일 브렌트유는 100달러를 조금 넘는 선에서 마감했다. 공급 차질이 더 작았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보다 낮은 값이다. 다만 미국의 수출 증가분은 생산 증가보다 재고 방출에서 나왔다. 미국이 이 수준을 얼마나 이어 갈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다.

9월 24일 워싱턴 정상회담도 같은 틀 위에 서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회담 전망을 이렇게 내놓았다. 시 주석은 이란을 직접 압박하라는 요구를 피하면서 조속한 종전을 촉구할 것이다. 중국 은행과 기업을 겨냥한 이란 관련 제재를 자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제재가 커지면 중국이 국제 시장에서 원유를 더 사게 되고 유가가 오른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란 관여는 아주 적다고도 했다. 여당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중국의 이란 지원을 회담에서 따지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란 문제로 시 주석을 압박하라고 촉구했다.

백악관은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도움을 원한다. 동시에 중국이 해협의 지렛대를 쥐고 있다는 인상은 피하고 싶어 한다. 중국은 그 틈에서 말은 아끼고 실리는 행기는 방식을 이어 가고 있다.

6.4 북한 핵 변수와 미중 대거래: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와 중국의 '교량' 역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와 판문점에 이은 만남을 바라는 것이다. 8월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연합연습을 크게 줄이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이유로 들었다. 북한은 이 연습을 침략 연습이라고 불러 왔다.

북한의 답은 미사일이었다. 9월 11일 한미일 '프리덤 예지' 훈련이 끝났다. 다음 날인 9월 12일 북한은 여러 무기를 섞어 쏘았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격 드론, 전술 순항미사일, 대구경 방사포였다. 9월 18일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다. 미국이 이끄는 정례 훈련이 한반도 긴장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핵 억제력을 더 키우겠다는 뜻도 밝혔다.

9월 20일 북한은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약 3시간 간격으로 쏘았다. 첫 발은 약 450km, 둘째 발은 600km 넘게 날았다. 북한 매체는 이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를 참관했다.

전문가들은 이 발사를 유엔총회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신호로 읽는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미국과 협상하려면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조건을 내건 바 있다. 미국이 적대 정책을 버리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25년 10월 열병식에서 아직 시험하지 않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도 공개했다.

이 대목에서 중국의 위치는 미묘하다. 5월 베이징 회담에서 중국은 북핵을 논의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북한 비핵화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런 발언에 예민하다. 최대 교역국이자 오랜 동맹인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아직 입에 올리는지 신경 쓰기 때문이다.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말해 왔다. 북한은 주권국가이고 중국이 좌우할 수 없다는 논리다. 실제 행동은 달랐다. 2018년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나서자 시 주석은 석 달 사이 김 위원장을 세 번 만났다. 베이징과 다롄이 그 무대였다.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질 때마다 중국은 자신의 몫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교량(Bridge)' 역할은 중국에게 거래 대상이다.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대가로 무엇을 얻을지 따지는 것이다. 중국이 원하는 대가는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자제, 그리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제재 완화다. 시진핑 주석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보며 북한 카드를 아끼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계산도 복잡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남측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원하고, 한국이 이를 위해 미리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북 대화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다.

미국과 한국의 공식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러나 실무선에서는 핵 동결과 미사일 통제부터 다루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전제로 두고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방식이다. 공식 목표와 실제 협상안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 이 거리를 누가 메우느냐에 따라 한반도 협상에서 한국의 발언권도 달라진다.

6.5 한국 경제와 안보의 직격탄: 에너지 '이중 의존'과 실용 외교의 시험대

한국은 쓰는 원유를 거의 다 수입한다. 2025년 원유 수입 가운데 중동산 비중은 69.1%였다. 호르무즈 봉쇄는 한국 에너지 공급의 목을 죄는 일이다.

충격은 여러 길로 들어왔다. 먼저 정유사의 원유 도입 단가가 뛰었다. 카타르 라스라판 LNG 단지가 3월 이란 공격으로 생산 능력의 17%를 잃었다. 복구에는 3~5년이 걸린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 분석업체 보텍사는 한국을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카타르 LNG 차질에 취약한 나라로 꼽았다. 석유화학 업계는 나프타 값이 오르면서 공장 가동률을 낮춰야 했다.

국내 연구기관의 전망도 어두웠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월 초 보고서를 냈다. 전쟁이 일찍 끝나도 유가가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63달러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봤다. 조기 종전 때 90달러, 봉쇄 장기화 때 117달러를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봉쇄가 3개월 넘게 이어지는 경우를 따져 보았다. 이때 한국 제조업 평균 생산비는 11.8%, 전 산업 평균은 9.4% 오른다고 추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2026년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낮췄다.

정부는 여러 겹의 대응을 폈다. 3월에 아랍에미리트산 원유 2,400만 배럴을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다. 미국, 호주, 알제리로 도입선을 넓혔다. 그 결과 1~5월 중동산 비중은 62.8%로 6.3%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이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50% 아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비축유도 1억 배럴 넘게 남아 있다. 김성한 장관은 1년 넘게 공급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석탄발전소 폐지 일정도 늦췄다.

7월 중순 봉쇄가 다시 시작되자 정유업계는 긴장했다. 업계는 9월 이후 하반기 물량 확보를 걱정했다. 이때 해협에 갇혀 있던 HMM의 초대형 유조선이 빠져나와 울산에 닿았다. 전쟁 뒤 해협을 빠져나온 첫 한국 선박이었다.

환율은 완충 역할을 했다. 원·달러 환율은 3월 1,500원대로 올랐다. 6월 초에는 한때 1,560원을 넘었다. 7월부터 내려와 9월 11일 1,343원을 기록했다. 원화 강세가 원유 도입 비용 부담을 일부 덜어 준 것이다. 그래도 유가 상승분을 다 상쇄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비축유 스와프와 도입선 다변화로 버틴다는 방침이다.

다변화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국내 정유 설비는 항 함량이 높은 중동산 중질유에 맞춰져 있다. 미국산 셰일 원유 같은 경질유를 많이 들이면 공정 효율이 떨어진다. 설비를 바꾸려면 큰돈이 든다. 중동에서 한국까지는 항로도 짧고 안정적이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다변화가 경제적으로는 손해인 구조다.

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의 다리 역할을 맡았다. 베이징 정상회담 전날인 5월 13일, 허리핑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이 차례로 청와대를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사람을 잇달아 접견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의전실에서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했다. 이 대통령은 허 부총리에게 한중 관계 복원을 실용 외교의 성과로 내세웠다. 베센트 장관에게는 대미 투자를 약속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비판도 적지 않았다. 야당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줄타기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공격했다.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말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깎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사태가 드러낸 약점은 에너지의 '이중 의존(Double Dependency)'이다. 원유는 중동에 기댄다. 그 원유가 지나는 바닷길의 안전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기댄다. 두 고리 모두 한국이 직접 손쓸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

여기에 안보 변수가 겹친다. 중동이나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커지면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이 다른 전장으로 옮겨 갈 수 있다.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다른 협상의 재료로 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중이 한반도와 중동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흥정할 때 한국은 그 자리에 없다.

한국이 준비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원유와 LNG 공급선을 실제로 넓히는 장기 투자다. 다른 하나는 미중 대거래에서 한국의 몫을 지켜 낼 협상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정은 몇 주 안에 울산과 여수 공장의 원가에 반영된다. 이 시차를 줄이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6.1 관련

김경진, 2026, 《beijing-2026-summit-kimkj》 제1장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미국의 위기, 중국의 기회, 미중관계 보고서, 서울.

Wikipedia, 2026 Iran war fuel crisis (2026년 9월 확인).

Wikipedia, 2026–2028 world oil market chronology (2026년 9월 확인).

Global Maritime Insider, 2026.7.29, China-linked tankers are not exempt from Hormuz chokepoint risks.

CNBC, 2026.8.10, Oil prices today: Uncertainty over U.S.-Iran Strait of Hormuz deal.

CNBC, 2026.9.2, Trump-Xi Washington summit: Why some expectations are low.

Al Jazeera, 2026.9.14, US says it's clearing Hormuz traffic: Why are oil futures beyond \$100?

CBS News, 2026.9월 초, U.S. forces hit IRGC-linked oil tankers as oil nears \$100 a barrel.

Trading Economics, 2026.9.23, Brent crude oil.

Toda Peace Institute, 2026.8.21, The September 24 Test: Iran, Protocol, and the Future of Xi-Trump Diplomacy.

NBC News, 2026.9.23, Trump tells U.N. he could 'annihilate' Iran but expects a deal after the midterm elections.

National Security Journal, 2026.5.7, Every Iranian Chinese-made CM-302 missile the Navy shoots down is a free war plan for Beijing.

6.2 관련

김경진, 2026, 《beijing-2026-summit-kimkj》 제8장 호르무즈 해협의 밀약과 중국의 역할, 미중관계 보고서, 서울.

Lloyd's List, 2026.4.12, Cosco VLCCs break through Hormuz even as US-Iran diplomacy falters.

The Jerusalem Post, 2026.5.14, Chinese supertanker exits Gulf, crossing Hormuz after months of delay.

OilPrice.com, 2026.5.14, Chinese Tankers Resume Hormuz Transit Under Iran Coordination.

Malay Mail(Anadolu 인용), 2026.3.14, Iran considers allowing limited oil tankers through Hormuz if cargo traded in yuan.

Axios, 2026.8.25, Trump's Iran "D-Day" leaves sanctions hammer hanging.

CNBC, 2026.8.24, Trump admin unveils anti-Iran global sanctions plan, signals China not exempt.

China Global South Project, 2026.8.25, U.S.' New Iran Sanctions Hit Chinese Firms But Avoid Bigger Fight With Beijing.

SpecialEurasia, 2026.9.1, US Operation Economic Outcast and Chinese Countermeasures.

Foreign Policy, 2026.9.22, Trump's 'Economic D-Day' Against Iran Risks U.S. Ties With China.

Just The News, 2026.8월, Treasury's 'Operation Economic Outcast' delivers warning to China.

The Times of Israel · Jerusalem Post · Vision Times, 2026.9월, 중국산 위성영상과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 관련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인용 기사.

Army Recognition, 2026.4.7, Iran uses Chinese AI satellite imagery to target U.S. military bases.

Ground News(Reuters 인용), 2026.3.10, China boosted oil imports nearly 16% in early 2026.

6.3 관련

TIME, 2026.5.14, Trump Says Xi Offered To Help Broker Peace With Iran.

The Times of Israel, 2026.5.14, Trump, Xi agreed Strait of Hormuz 'must remain open'.

NBC News, 2026.5.15, 베이징 정상회담 라이브 블로그(루비오 국무장관 인터뷰).

Semafor, 2026.3.30, China set to resume US energy purchases.

Nikkei Asia, 2026.3.31, China looks to restart US energy imports as Iran tensions rattle markets.
S&P Global Platts, 2026.3.9, China may resume US crude imports on supply crisis after 9-month gap.
CNBC, 2026.5.15, How China and U.S. eased the Middle East oil shock.
CSIS, 2026.9.23, Xi Jinping's Return to Washington: A State Visit to Build Stability.
The Washington Sun(NOTUS), 2026.9월 초, State Dinner in the Works for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Visit to D.C.
ABC News, 2026.9.24, Trump-Xi meeting comes amid tensions on Iran, Taiwan and trade.
NBC News, 2026.9.23, 유엔총회 라이브 블로그(로저 위커 상원의원 발언).

6.4 관련

The Diplomat, 2026.9.22, Ahead of Trump-Xi Summit, North Korea Launches More Missiles.
The Korea Herald, 2026.9.21, N. Korea missile launches seen as signaling ahead of UN gathering, Trump-Xi summit.
South China Morning Post, 2026.9.23, Did North Korea's missile launches target the Xi-Trump summit agenda?
Times Live(AP 인용), 2026.9.20, North Korea launches ballistic missiles amid US 'hostilities'.
The Washington Times, 2026.9.20, North Korea launches multiple ballistic missiles.

6.5 관련

글로벌이코노믹, 2026.4.3, 호르무즈 봉쇄로 EU 연료 배급제 현실화... 한국 제조업 생산비 12% 증가 경보.
글로벌이코노믹, 2026.4.21, 호르무즈의 족쇄... 한국은 왜 원유 수입 다변화를 하지 못했나.
더팩트, 2026.7.14, 또 막히는 호르무즈...정유업계, 9월 이후 원유 수급 '먹구름'.
서울신문, 2026.7.13, 기름값 또 오르나...정부 "중동산 원유 50% 아래로 낮추고 다변화".
서울신문, 2026.9.17, 국제유가 치솟는데 왜 기름값 묶나...10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가닥.
경향신문, 2026.5.13, 베센트·허리핑,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인천서 회동.
뉴스스, 2026.5.13, 베센트·허리핑 인천공항서 회동 시작.
kbc 광주방송, 2026.5.13, 미중, 한국서 회담 사전협의...李대통령, 베센트·허리핑 연쇄접견.
Vortexa, 2026.3.10, S Korea, Taiwan, and Singapore vulnerable to lost Qatari LNG.

제7장 샌드위치에 선 한국 경제: K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의 외교적 셈법

7.1 12개월 유예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복잡한 계산

2026년 9월 2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시 마주 앉았다. 5월 베이징 회담 이후 넉 달 만의 만남이다. 서울 증권가는 이 회담을 외교 뉴스보다 반도체 뉴스로 먼저 읽었다. 회담 이틀 전인 22일 코스피는 7017.91로 장을 마쳤다. 투자자들의 눈은 워싱턴에서 나올 반도체 규제 신호에 쏠려 있었다.

증권가가 그린 기본 시나리오에는 두 갈래였다. 11월 10일 끝나는 부산 무역 휴전을 늘리는 것이 하나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다른 하나다. 첨단 반도체 통제는 협상과 따로 움직이는 안보 장벽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휴전은 12개월 더 이어지는 쪽으로 정리됐다. 한국 반도체는 적어도 1년 동안 최악의 충격을 비켜 가게 됐다.

숨통이 트인 곳은 먼저 중국 현지 공장이다. 삼성전자는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공장을 돌린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을, 다롄에서 낸드를 만든다. 세 공장은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누렸다. VEU는 보안 요건만 갖추면 미국산 장비를 건별 허가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특례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8월 말 이 특례를 거둬들이겠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12월 31일이었다. 그대로 갔다면 두 회사는 장비를 들일 때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BIS 스스로 연간 허가 신청이 1000건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행 하루 전 미국은 방식을 바꿨다. 1년 치 장비와 부품 목록을 미리 내면 한꺼번에 심사해 승인하는 연간 허가제다.

이 제도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공장을 늘리거나 공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장비는 내주지 않는다. 중국 공장은 돌릴 수는 있어도 키울 수는 없는 상태다. 허가도 해마다 새로 받아야 한다. 12개월 휴전은 이 허가가 정치적 이유로 끊길 위험을 1년 늦춰 준 것이다. 문제를 푼 것은 아니다.

휴전이 한국 반도체에 반가운 소식만 가져온 것도 아니다. 호재와 악재가 한 장의 카드 앞뒷면에 붙어 있다.

첫째는 대체 수요가 줄어드는 문제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조이는 동안 중국 기업은 미국에서 못 사는 물건을 한국에서 샀다. 미중이 관세를 내리고 교역의 틀을 새로 짜면 이 구조가 느슨해진다. 한국 기업이 틈새에서 누리던 몫도 그만큼 작아진다.

둘째는 중국 메모리의 추격이다. 중국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는 7월 27일 상하이증권거래소 과창판에 상장했다. 공모가보다 466% 오른 가격으로 첫날 거래를 마쳤다. 상장으로 모은 돈은 579억 위안, 우리 돈 약 12조5000억 원이다. 올해 아시아 증시 기업공개(IPO)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장중 기업가치는 3조7000억 위안, 약 802조 원까지 올랐다.

한국 증시는 이 소식에 크게 흔들렸다. 이른바 '창신메모리 쇼크'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각각 8%대, 10%대 떨어졌다. 코스피에는 서킷브레이커까지 걸렸다. 시장이 겁낸 것은 당장의 기술 격차가 아니었다. 삼성, SK, 마이크론 세 회사가 나눠 가진 메모리 과점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었다.

추격 속도는 회담 직전에도 확인됐다. CXMT는 9월 20일 5세대 D램 공정인 G5 플랫폼 양산을 공식 발표했다. KB증권은 같은 조건에서 웨이퍼 한 장당 생산량이 이전 세대보다 50% 넘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24GB 용량의 모바일 D램도 중국 고급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국 업체에 부담이 되는 곳은 고대역폭메모리(HBM)보다 범용 메모리 쪽이다. HBM은 인공지능(AI) 가속기에 붙는 고성능 D램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능력의 절반 이상을 아직 범용 제품에 쓴다. CXMT가 상장 자금으로 범용 D램을 늘리면 가격이 먼저 흔들린다. HBM에서 앞서도 전체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셋째는 AI 칩을 둘러싼 셈법이다. 미국은 엔비디아 H200의 중국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업에 조건부로 대량 구매를 승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중국은 이 조건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웨이의 어센드 칩 등 자국 생태계를 키우는 쪽을 택했다.

H200에는 HBM이 들어간다. 중국이 H200을 사들이면 한국 HBM 수요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이 자국 칩을 고집하면 그 몫은 사라진다. 게다가 중국이 AI 칩을 자체 조달할수록 중국산 HBM을 키우려는 움직임도 빨라진다. CXMT가 상하이 공장 일부를 HBM3

생산으로 돌리고 있다는 보도가 이를 보여 준다.

하나증권 김두언 연구원은 희토류 허가 정상화가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합의문보다 출하량, 판매가격, 고객 주문, 앞으로 12개월 이익 전망을 함께 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회담의 성적표는 발표문이 아니라 두 회사의 분기 실적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회담 열흘 전쯤 나온 뉴스 하나는 두 회사의 속내를 보여 준다. 한국전력은 7월 9일 두 회사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 지난해 낸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5년 치를 미리 내 달라는 내용이었다. 삼성전자 약 20조 원, SK하이닉스 약 5조 원, 합쳐서 25조 원이다.

한전은 이 돈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국가 기간 전력망 건설에 먼저 쓸 계획이었다. 선납금에는 국고채 2년물보다 높은 이자를 붙여 준다는 조건도 달았다. 한전의 총부채는 6월 말 기준 210조7000억 원이다. 하루 이자만 115억 원이 나간다.

두 회사는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제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9월 11일 최종적으로 거절했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5년 동안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미중 변수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그래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기업이 5년 뒤를 자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무겁다. AI 수요, 중국의 추격, 미중 규제가 한꺼번에 얹힌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판단 밑에 깔려 있다.

7.2 희토류 12개월 유예와 K배터리 공급망

희토류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바로잡을 점이 있다. 배터리 셀 자체에는 희토류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은 희토류와 화학적으로 직접 관계가 없다. 희토류가 걸리는 곳은 전기차 구동 모터다. 모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영구자석이 디스프로슘, 터븀 같은 중희토류를 쓴다.

그래서 희토류 통제의 직격탄은 배터리 업체보다 완성차 쪽으로 향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1~9월 국내 희토류 원재료 수입의 89.4%가 중국산이었다. 세계 영구자석 생산의 80~90%도 중국에서 이뤄진다. 현대차는 2024년 10월 희토류 등 핵심 소재의 탈중국을 전사에 지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서도 선행 개발 단계에서 중국산 자석 수급 차질을 겪었다.

중국은 2025년 4월 중희토류 7종에 수출 허가제를 걸었다. 10월에는 대상을 12종으로 넓히려 했다. 중국산 희토류가 0.1%만 들어가도 제3국 제품까지 허가를 받게 하는 규정도 내놓았다. 한국 공장에서 만든 모터라도 미국이나 유럽으로 팔 때 베이징의 승인이 필요해질 수 있었다.

이 10월 조치는 부산 합의로 1년 미뤄졌다. 그 유예가 끝나는 날이 11월 10일이다. 워싱턴 회담에서 휴전이 12개월 늘어나면서 이 시한도 1년 뒤로 밀렸다. 자동차와 부품 업계가 당장 라인을 세울 일은 피한 셈이다.

유예가 곧 안정은 아니다. 4월에 시작된 허가제는 휴전과 상관없이 그대로 살아 있다. 중국은 7월 1일부터 새 규칙도 시행했다. 전략물자를 개조, 분해, 조립해 허가를 피하는 행위를 신고하게 한 것이다. 제3국을 거치거나 완제품에 넣어 들어오는 우회 조달까지 단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 쪽 통계도 불안한 흐름을 보여 준다.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은 8월 512톤이었다. 7월보다 20%, 1년 전보다 13% 줄었다. 미국 기업 가운데는 수출 허가를 반년 넘게 기다린 곳도 있었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희토류 약속의 3분의 2만 지켰다고 보고 있다.

배터리 업계가 중국에 묶인 고리는 희토류보다 흑연과 LFP 소재다. LFP는 리튬인산철 배터리로, 값이 싸고 불이 잘 안 붙는 것이 장점이다. 음극재 원료인 흑연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다. 국내에서 흑연계 음극재를 만드는 곳은 포스코퓨처엠 한 곳뿐이다.

LFP 쪽 사정은 더 심하다. 세계 LFP 양극재의 85% 이상이 중국에서 나온다. 원료인 인산철 전구체는 90% 이상, 탄산리튬 정제 능력도 70% 이상이 중국에 몰려 있다. 한국 배터리 3사는 요즘 북미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배터리를 늘리고 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소재가 대부분 중국에서 온다.

이 구조는 미국 세액공제 규정과 부딪힌다. 미국은 중국 등 금지외국기관에서 온 소재 비중을 해마다 낮추도록 요구한다. 하나증권은 2029년 이후 이 조건을 맞추려면 흑연의 탈중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밖에서 음극재용 흑연을 대규모로 늘릴 계획을 가진 기업은 포스코퓨처엠이 거의 유일하다는 평가도 곁들였다.

업계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포스코퓨처엠은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 원료를 들고 있다. 제철 부산물로 인조흑연도 만든다. 메탄을 고온에서 분해해 탄소를 얻는 기술도 미국 기업과 함께 개발 중이다. 나트륨이온배터리용 하드카본은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K문샷 사업에 희토류 리스크 제로화를 넣었다. 중희토류를 뺀 고성능 자석을 7년 안에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적어도 2030년까지 희토류 공급망을 지배할 것으로 본다. 채굴부터 분리, 자석 제조까지 전 과정이 그렇다. 광산에서 자석까지 이어지는 독자 공급망을 새로 짓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12개월은 그 긴 공사의 첫 삽을 뜨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2027년 가을 베이징이 밸브를 다시 잠그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2025년 10월의 충격을 한 번 더 맞게 된다.

7.3 투자위원회와 CATL·BYD의 북미 진출 가능성

한국 배터리 업계가 희토류보다 길게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다. 미중이 만들기로 한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5월 베이징 회담 무렵 이 구상을 처음 공개했다. 일부 중국 투자를 빠르게 승인하는 장치를 두고, 비핵심 상품의 관세를 내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었다.

구상의 속도는 느렸다. 8월 중순 미중무역전국위원회 회장은 양쪽 모두 협의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간과 논의할 준비도 돼 있지 않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회담이 다가오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로이터는 9월 18일 시진핑 주석 방미에 중국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후보 명단에는 BYD, 샤오미, CATL, 귀쉬안(Gotion) 등이 올랐다. 미국 국방부는 CATL을 2025년 1월, BYD를 2026년 6월 중국군 연계 기업 명단에 올렸다. 규제 대상 기업들이 백악관 만찬장에 초대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방향을 가리켰다. 그는 회담 두 주 전 중국 기업이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사람을 고용한다면 괜찮다는 논리다. 멕시코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넘기는 방식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공장의 국적보다 위치와 고용을 보겠다는 뜻이다.

제도상 장벽은 아직 높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매긴다. 2027년형부터는 중국과 연결된 제조사가 미국에서 커넥티드카를 팔지 못하게 하는 규칙도 있다. 미국에서 만든 차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차가 속한 자동차혁신연합 등 완성차 업계는 중국차의 시장 진입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 분야에서는 이미 문이 조금 열려 있다. 포드는 CATL의 LFP 기술을 라이선스로 받아 미시간 마셜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든다. 이 공장은 올해 생산을 시작했다. 같은 포드가 2025년 말 SK온과 세운 합작법인 블루오벌SK를 정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약 3조7000억 원의 손실을 반영했다. 포드는 LG에너지솔루션과 맺은 9조6000억 원 규모 공급계약도 해지했다.

미국 안에서도 반발은 있다. 쏘니 더피 교통부 장관은 9월 8일 포드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미시간 공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히고, CATL이 중국군 연계 기업 명단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회에서도 포드가 동맹국과 손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 배터리 3사는 그동안 중국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틈을 파고들었다. 미국 완성차 업체와 합작법인을 세우고 먼저 자리를 잡았다. 전기차 수요가 꺾이자 이번에는 ESS로 방향을 틀었다. 올해 상반기 북미 ESS 배터리 출하량은 1년 전보다 83% 늘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과 테네시 공장을 ESS용 LFP 라인으로 바꾸고 있다. 삼성SDI도 인디애나 합작공장을 같은 방향으로 돌렸다.

ESS는 LFP가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LFP는 CATL이 가장 강한 분야이기도 하다. 투자위원회가 CATL과 BYD의 미국 공장 건설이나 미국 기업과의 제휴를 열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의 선점 효과가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 ESS다.

한국 배터리가 놓인 자리는 역설적이다. 미국의 대중 규제가 강해질수록 한국 기업은 반사이익을 얻는다. 미중 관계가 풀려 중국 자본이 들어올수록 그 이익은 줄어든다. 워싱턴 회담은 이 두 힘을 동시에 키웠다. 규제의 벽은 그대로 두고, 그 벽에 문 하나를 달 설계도를 함께 그렸기 때문이다.

7.4 에너지 안보의 이중 의존과 정유·석유화학의 부담

반도체와 배터리가 기술 전선이라면 에너지는 생활 전선이다. 한국은 쓰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한다. 원유는 거의 전량을 들여온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산 원유 비중은 69.1%였다. 그 중동산 원유의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중동 의존도는 한때 내려갔다. 2015년 82.3%에서 2021년 59.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근 3년 동안 다시 70% 안팎으로 올라왔다. 도입처를 늘려도 같은 해협을 지나면 위험은 하나로 묶인다.

이란 전쟁은 이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호르무즈 봉쇄가 시작되자 정유사들은 원유 도입선을 바꾸느라 바빴다. 매일경제는 호르무즈 봉쇄 한 달,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가동률이 떨어졌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원료 수급 차질로 일부 공정이 속도를 줄였다.

석유화학은 중동산 나프타를 원료로 쓴다. 나프타 값이 오르면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 유분 가격이 따라 오른다. 이 부담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케이스, 의약품 포장재, 농업용 필름까지 번진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를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값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도 운영했다.

9월 들어 상황은 다시 나빠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이 드론 공격을 받고 멈춘 것이다. 이 송유관은 사우디 동부 유전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약 1200km를 잇는다.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을 보낼 수 있어 호르무즈를 피하는 핵심 우회로였다.

한국석유공사 집계로 9월 18일까지 평균 유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4달러, WTI가 96.3달러였다. 5월 19일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유업계는 9~10월 물량은 확보해 뒀다. 걱정은 11월부터다. 수에즈 운하로 돌아오면 도착까지 30일쯤 더 걸리고 운임도 늘어난다.

정유사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SK에너지는 12월에 도착할 미국산 WTI 400만 배럴을 샀다. GS칼텍스도 200만 배럴을 확보했다. 미국산은 수송 거리가 길어 운임이 중동산의 두 배 수준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처음으로 시범 도입했다. SK이노베이션도 소량을 사들였다.

그러나 국내 정제시설은 중동산 원유에 맞춰 설계돼 있다. 다른 유종을 들이면 처리 비용이 늘고 정제 마진이 줄어든다. 입법조사처가 비중동산 원유 처리 능력을 높이는 설비에 세액공제 우대를 검토하자고 제안한 이유다. 유가뿐 아니라 나프타 가격 차이, 해상운임, 민간 재고, 설비 가동률을 함께 보는 조기경보 체계도 권고했다.

이번 사태가 보여 준 것은 한국 에너지 안보가 두 겹으로 남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유는 중동에 기대고 있다. 그 원유가 지나는 바닷길의 안전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기대고 있다. 미 해군의 군사력이 해협을 열 수도 있다. 이란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외교가 문을 열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한국이 쥔 카드는 아니다.

NHK는 한국과 일본이 호르무즈 위기에서 중국과 같은 완충장치를 갖추지 못한 채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넉넉한 비축유와 이란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충격을 줄였다. 같은 위기 앞에서 어떤 나라는 공장을 멈추고, 어떤 나라는 협상 카드를 얻었다. 워싱턴 회담의 중동 의제가 한국 정유사의 11월 원가표로 곧장 이어지는 이유다.

7.5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와 사안별 연대의 시험대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전략적 자율성', '사안별 연대'를 외교 노선으로 내걸었다. 동맹은 지키되, 사안마다 한국에 유리한 쪽과 손잡겠다는 뜻이다. 올해 미중 정상외교는 이 노선을 시험하는 무대가 됐다.

첫 장면은 5월 13일이었다. 베이징 회담 하루 전이다. 이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 청와대에서 허리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났다. 10시 30분에는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했다. 두 사람은 이후 인천공항 등지에서 만나 베이징 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했다. 허 부총리는 정상회담 직전 무역 협상을 한국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2025년 10월 부산 APEC 회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미중 협상의 무대가 된 것이다. 정부는 두 나라가 한국의 실용 외교에 신뢰를 보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에게 공급망과 외환시장 협력을 당부했다. 허 부총리에게는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넓히자고 했다.

두 번째 장면은 워싱턴 회담 이틀 전 뉴욕이었다. 이 대통령은 9월 22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30분 동안 만났다. 예정에 없던 회담이었다. 한국 정부가 같은 날 대미 투자 1호 사업을 국회에 보고한 것이 회담 성사에 힘이 됐다.

1호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다. 설비용량 6.3기가와트, 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다.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겨냥한 사업이다. 2호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3호로는 알래스카 LNG 개발이 거론됐다. 한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조선 분야 1500억 달러와 전략 투자 2000억 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다음 날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회담을 기원한다는 뜻도 전했다. 같은 날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도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두 정상은 AI, 반도체,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다시 확인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에 말을 거는 방식을, 일본은 미국과의 결속을 앞세우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국내 평가는 엇갈린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줄타기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장동혁 의원은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동맹의 신뢰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실용 외교의 성과를 숫자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비판에는 일리가 있다. 무대가 된 것과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다른 일이다. 무대 위에 서면 조명을 받는다. 그러나 조명의 각도와 밝기는 배우가 정한다. 인천공항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그 결과에 한국의 이익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한국이 안은 부담은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다.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일보다 두 나라를 동시에 관리하는 일이 더 어렵다. 미국에는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핵추진잠수함과 전시작전권 문제가 걸려 있다. 중국에는 희토류, 흑연, 반도체 공장, 최대 교역 시장이 걸려 있다. 미중이 큰 거래를 틀수록 한국이 누리던 대체 수요와 협상 여지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실용 외교는 두 강대국이 사이가 좋을 때도 시험대에 오른다.

7.6 12개월의 시한과 한국 산업의 골든타임

이번 회담의 핵심 결과는 휴전 연장, 비민감 상품 관세 인하, 희토류 통제 유예다. 이 결과들이 한국 경제에 평화를 준 것은 아니다. 여러 개의 시계를 다시 12개월에 맞춰 놓은 것이다. 세종연구소는 5월 베이징 회담 직후 이를 12개월짜리 시한폭탄 여덟 개를 동시에 돌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 시계가 멈추는 2027년 가을은 여러 일정이 겹치는 시기다. 중국은 그해 가을 제21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연다. 시진핑 주석의 네 번째 임기가 걸린 자리다.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도 같은 해 8월이다. 미국은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치른 뒤 2028년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 두 나라 모두 국내 정치가 대외 협상을 흔들 수 있는 시기에 휴전 만료를 맞는다.

미국 쪽 시계도 따로 돈다. 미국 국방 조달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우려국 원료가 들어간 희토류 자석의 사용을 더 엄격히 막는다. 중국은 명시적인 우려국이다. 중국의 통제와 미국의 규제가 동시에 조여 오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이 해야 할 일을 두 줄로 정리했다. 먼저 미국이 챙긴 5B에서 한국 이익과 겹치는 항목을 찾아야 한다. 5B는 보잉, 대두, 소고기,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다. 보잉 정비(MRO), 반도체 장비, 배터리 소재가 그런 항목이다. 동시에 중국이 지킨 3T에서 한국이 노출되는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3T는 대만, 관세, 기술이다. 대만 유사시, 희토류 통제, AI 칩 공급망이 여기에 들어간다.

12개월 동안 할 일은 분야마다 다르다. 반도체는 중국 공장을 키울 수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삼성전자는 평택 4공장에 D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와 청주 M15X 건설에 속도를 낸다. 미국 인디애나에는 HBM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 중국 팹의 비중을 서서히 줄이고, CXMT와의 기술 격차를 HBM과 차세대 공정에서 벌려야 한다.

배터리는 흑연과 LFP 소재의 비중국 공급망이 과제다. 미국 세액공제 조건이 해마다 까다로워지는 만큼 이 일은 선택이 아니다. ESS 시장에서 CATL과 맞설 원가 경쟁력도 필요하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에서 격차를 만들어야 중국 자본이 북미에 들어와도 버틸 수 있다.

에너지는 비축과 설비와 계약을 함께 손봐야 한다. 비중동산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정제 설비를 늘리고, 나프타와 LPG의 비축 여력을 키워야 한다. 원유 가격만 보는 경보 체계로는 물리적 공급 차질을 제때 잡기 어렵다.

외교는 무대를 제공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 기업의 이해가 걸린 항목을 구체적으로 협상 의제에 올리는 일이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처럼 약속을 지켜 얻은 신뢰가 있다. 이를 희토류나 반도체 장비 허가 같은 실질 문제로 바꿔 내야 한다.

이 모든 일에 12개월은 짧다. 공급망 하나를 새로 세우는 데 5년이 걸린다면, 1년은 설계도를 확정하고 첫 투자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이 기간을 놓치면 2027년 가을 미중의 스위치가 다시 내려간다. 그때 한국은 같은 충격을 또 맞는다. 워싱턴 회담이 한국에 준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책을 준비할 수 있는 1년이라는 시간이다.

참고문헌

7.1

이투데이, 2026년 9월 22일, 「미중 'AI 담판' 앞둔 삼성전자…中 메모리 추격이 반등 변수」, 김범근 기자.
뉴시스·파이낸셜뉴스, 2026년 9월 23일, 「미·중 정상회담에 쏠린 증시 눈…반도체 규제 향방이 삼전·닉스 변수」.
뉴스1, 2025년 12월 30일, 「美, 삼성·SK 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규제 완화…연간 허가제 전환」.
글로벌이코노믹, 2026년 7월 28일, 「CXMT, 상장 첫날 주가 466% 폭등… "한국 메모리 양강 위협"」.
Korea Herald(GeekNews 요약), 2026년, 「중국 CXMT, DDR4 반값 공급으로 삼성·SK의 HBM4 경쟁에 압박」.
전자신문, 2026년 9월 14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한전 '25조 전기료 선납' 제안 거절」.
뉴스핌, 2026년 9월 13일, 「삼성·SK하이닉스, 한전 '5년 치 전기요금 선납' 제안 거절」.
CNBC, 2026년 9월 23일, 「Trump-Xi summit: U.S. alliance strains complicate China strategy」.
김경진, 2026년, 『베이징 2026 정상회담』 (beijing-2026-summit-kimkj), 「한국이라는 좌표」.

7.2

아시아경제, 2026년 1월 9일, 「'中·日 희토류 전쟁'에 韓 산업계 긴장…"영구자석 공급망부터 우려"」.
다음뉴스(원문 매체 보도), 2025년 11월 11일, 「전기차 핵심 영구자석 90% 中의존…희토류 수입 다변화 절실」.
아시아투데이, 2026년 6월 30일, 「中, 日기업 '희토류 우회수출' 첫 형사 문제화」.
CNBC, 2026년 9월 23일, 「Soybeans, planes and rare earths: What they say about fragile U.S.-China trade tru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6년 9월 22일, 「Ten Issues to Watch at the Trump-Xi Summit in Washington」.
Foreign Policy, 2026년 9월 22일, 「Trump-Xi Summit Underscores China's Rare-Earth Trade Leverage」.
글로벌이코노믹, 2026년 9월 22일, 「LFP로 갈아탄 K배터리…쪼뉘기만 韓, 실속은 中」.
이투데이, 2026년 5월 28일, 「하나증권 "포스코퓨처엠, 흑연 가치 부각"」.
굿모닝경제, 2026년 8월 17일, 「흑연 수출 통제에 떨던 배터리 업계, 음극재 자립 속도 낸다」.
헤럴드경제, 2026년 9월 23일, 「"45일 걸리던 흑연 생산 하루로"…음극재 시장 공정혁신 승부」.
이데일리, 2026년 9월, 「"중희토류 0.1%도 中에 의존하면 산업 마비…7년 내 배제 기술 만든다"」 (K문샷 이상관 PD 인터뷰).

7.3

Bloomberg, 2026년 5월 14일, 「Bessent Says US, China Discussing 'Board of Investment'」.
South China Morning Post, 2026년 8월 13일, 「US-China 'Board of Investment' stalls before expected Trump-Xi meeting」.
Reuters, 2026년 9월 18일, 「BYD, CATL, Xiaomi executives may join Xi's US visit, sources say」.
비즈니스포스트, 2026년 5월 13일, 「미국 중국 정상회담 앞두고 포드 'CATL 배터리' 미국서 생산 시작, K배터리 ESS 사업에 경고등」.
서울경제(네이트뉴스), 2026년 2월 4일, 「脫중국 외치면서 배터리는 中종속 심화…트럼프 리쇼어링 한계」.
이콘밍글, 2026년 9월, 「미국 정부가 중국 배터리 기업에 철퇴 내린 이유」 (더피 교통장관 서한 관련).

7.4

일요주간, 2026년 9월 23일, 「호르무즈 위기가 드러낸 한국 에너지 공급망의 한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인용).
EBN, 2026년 9월 17일, 「국제유가 다시 100달러…정유·석화업계 "11월 물량 관건"」.
뉴스웨이, 2026년 9월 20일, 「호르무즈 막혀도 버티는 K정유…고비는 '11월 원유」.
이투데이, 2026년 9월, 「"10월, 그 이후가 문제" 우회로까지 막힌 韓정유, 원유 확보전」.
서울신문, 2026년 9월 18일, 「사우디 원유 우회공급 타진에 유가 하락했지만」.

김경진, 2026년, 『베이징 2026 정상회담』 (beijing-2026-summit-kimkj), 제1장 한국 관련 서술(매일경제·NHK 보도 인용).

7.5

디지털타임스, 2026년 5월 13일, 「李대통령, 베선트·허리핑 연쇄접견… 美中정상회담 앞 실용외교」.

kbc광주방송, 2026년 5월 13일, 「미중, 한국서 회담 사전협의...李대통령, 베선트·허리핑 연쇄접견」.

서울신문, 2026년 9월 23일, 「李대통령, 유엔서 트럼프와 회담..."대미투자 큰 진전 이룬 것 환영"」.

머니투데이, 2026년 9월 23일, 「대미투자 확정 직후 트럼프와 30분 '깜짝 회담'...무슨 얘기 오갔나」.

뉴데일리, 2026년 9월 22일,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소 확정 ... 원전은 협상 중」.

지이코노미, 2026년 9월 23일, 「3500억달러 대미투자 첫발...223억달러 '텍사스 AI 발전소' 1호로」.

글로벌이코노믹, 2026년 9월 23일, 「美中 회담 앞둔 미일... AI·희토류 대중 파워망 재확인」.

김경진, 2026년, 『베이징 2026 정상회담』 (beijing-2026-summit-kimkj),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

7.6

김경진, 2026년, 『베이징 2026 정상회담』 (beijing-2026-summit-kimkj), 「5B와 3T의 교차점에서」 (세종연구소 최은주 연구위원 인용).

Rare Earth Exchanges, 2026년 9월 23일, 「Trump Xi Summit Rare Earths Trade」 (DFARS 252.225-7052 관련).

글로벌이코노믹, 2025년 12월 27일, 「미국, TSMC·삼성·SK하이닉스 중국 공장 VEU 철회」.

이투데이, 2026년 9월 22일, 「한미글로벌,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공장 건설 PM 수행」.

제8장 G2의 미래: 공존의 가드레일인가, 잠정적 휴전인가

2026년 9월 23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스 합동기지 활주로에서 시진핑 주석을 맞았다.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찾는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직접 맞는 일은 드물다. 중국 지도자의 백악관 국빈 방문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5월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에 이어 넉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났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반년 안에 정상이 서로 오간 일을 두고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의전은 화려했다.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는 전 군종을 대표하는 장병 479명이 도열했다.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가 환영식 하늘을 지났다. 미국외교협회(CFR)의 러시 도시 선임연구원은 이 점을 짚었다. 이번 환대가 5월 베이징에서 트럼프가 받은 대접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는 의전의 불균형이 두 나라 관계 전체의 불균형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회담장 안의 사정은 의전과 온도가 달랐다. 11월 10일에 끝나는 무역 휴전을 얼마나 늘릴지가 첫 번째 숙제였다. 희토류, 인공지능, 대만, 이란 전쟁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과제들을 다루는 방식이 이번 만남의 성격을 정한다. 1년짜리 진통제로 끝날 수도 있고, 충돌을 막는 가드레일로 남을 수도 있다.

8.1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이름표

시진핑 주석이 이 표현을 처음 꺼낸 곳은 2026년 5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이었다. 중국어 원문은 '중미 건설성 전략 안정 관계(中美建設性戰略穩定關係)'다. 중국 측은 이것을 앞으로 3년 이상 양국 관계의 방향을 잡는 새 좌표라고 설명했다.

시진핑은 이 관계를 네 가지 안정으로 풀었다. 첫째는 협력을 중심에 두는 적극적 안정이다. 둘째는 경쟁에 절도가 있는 양성(良性) 안정이다. 셋째는 이견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常態)의 안정이다. 넷째는 평화를 기대할 수 있는 지속적 안정이다. 신화통신은 이를 '네 가지 안정'이라 부르며 여러 차례 반복해 보도했다.

베이징 회담에서 시진핑은 투키디데스 함정도 꺼냈다. 신흥 강국과 기존 패권국이 결국 전쟁으로 간다는 비관론이다.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시진핑은 두 나라가 이 함정을 넘어 대국 관계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치면 모두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合則兩利, 鬥則俱傷)"는 오래된 문구를 다시 썼다.

이 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왕이 외교부장의 설명에 잘 드러난다. 왕이는 협력 목록을 늘리고 문제 목록은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이 대만 문제를 각별히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못 박았다. 풀어 말하면 미국이 중국을 비판하지 말고 자극하는 행동도 삼가라는 뜻이다.

애틀랜틱카운슬의 멜라니 하트 선임국장은 이 방식이 낯설지 않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10여 년 전 오바마 행정부에 '신형 대국 관계'를 제안한 적이 있다. 이름을 붙여 합의해 두면 나중에 쓸 수 있는 무기가 생긴다. 미국이 중국이 싫어하는 조치를 하면 합의 위반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이번 '건설적 전략 안정'도 같은 구조다.

문제는 미국 쪽 반응이다. 하트는 미국에서 이 표현에 신경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본다. 중국 전문가 집단 밖에서는 이 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CFR의 조이 류 연구원은 두 나라가 같은 단어에 합의했지만 뜻은 서로 다르게 읽는다고 분석했다.

5월 베이징 회담의 발표문이 이 차이를 보여준다. 백악관 발표문은 174단어로 짧았다. 보잉, 대두, 소고기 같은 거래 품목이 중심이었고 대만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중국 발표문은

여러 쪽에 걸쳐 새 관계의 틀과 대만 경고를 담았다. 한쪽은 영수증을 챙겼고 다른 쪽은 판의 규칙을 적었다.

워싱턴 회담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방문을 '건설적 전략 안정'을 굳히는 자리로 소개했다. 트럼프는 자신과 시진핑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웠다. 두 나라가 가드레일을 두른 것은 맞다. 다만 그 가드레일은 평화의 보증서라기보다 서로의 손발을 묶어 두려는 말의 방어벽에 가깝다.

8.2 두 개의 정치 달력

트럼프의 달력에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크게 적혀 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가 있다. 투표 의향층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38%에 머물렀다. 하원 선거구 투표 의향은 민주당이 9%포인트 가까이 앞섰다. 무당층에서 경제가 1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답한 사람은 10%뿐이었다.

유권자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물가다. 이란 전쟁 이후 유가와 경유 가격이 올랐다. 공화당이 상원이나 하원 한 곳만 잃어도 임기 후반 2년의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트럼프에게는 선거 전에 보여줄 경제 성과가 필요하다. 무역 휴전 만료일이 선거 일주일 뒤인 11월 10일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시진핑의 달력은 훨씬 길다. 2026년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의 첫해다. 2027년 8월은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다. 2027년 가을에는 제21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열린다. CFR의 도시 연구원은 시진핑이 이번 방미 후 당대회를 향한 1년짜리 준비에 들어간다고 봤다.

두 달력의 차이는 휴전 기간을 두고 바로 드러났다. 베이징은 휴전을 트럼프 임기 끝까지 늘리기를 원했다고 전해진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짧은 연장을 중국의 이행을 점검하는 기간으로 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관리의 말을 빌려 희토류 약속의 3분의 2만 지켜졌다고 전했다.

전망도 엇갈렸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 1년 연장을 기본 시나리오로 잡았다. 애틀랜틱카운슬은 6개월 연장 가능성을 높게 봤다. 6개월이면 12월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다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간의 길이는 다음 절벽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정한다. 6개월 연장이면 만료일은 2027년 5월 무렵이 된다. 12개월 연장이면 2027년 11월 무렵이 된다. 뒤쪽이라면 만료 시점이 제21차 당대회 직후와 겹친다. 연임을 확정된 시진핑이 새 협상에 나서는 구도다.

이번 회담을 두고 흔히 트럼프는 헤드라인을 사고 시진핑은 시간을 샀다고 말한다. 그런데 미국도 시간을 사고 있다. 하트 국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뺀 모든 상대에게

같은 설명을 해 왔다. 지금의 휴지기는 희토류 의존을 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존을 풀고 나면 다시 강경책으로 돌아간다는 계획이다. 베이징도 이 속내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누가 이 시간을 더 잘 쓰느냐로 바뀐다. 희토류 광산부터 영구자석 생산까지 서방이 자체 공급망을 갖추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추산이 많다. 1년 사이에 중국의 자석 생산 장악력을 대신할 방법은 없다. 반면 중국은 같은 1년 동안 반도체 자립과 AI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희토류 분야만 놓고 보면 시간은 베이징 편에 가깝다.

그래서 이번 휴전 연장은 양쪽 모두의 시간 벌기다. 트럼프는 선거까지 버틸 진통제를 얻고, 시진핑은 당대회까지 흔들림 없는 환경을 얻는다. 구조적 대립은 그대로 남는다. 카운트다운의 시작점만 뒤로 옮긴 셈이다.

8.3 기술의 평행 우주

회담을 나흘 앞둔 9월 20일, 뉴욕에서 고위급 협의가 열렸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대표, 허리핑 부총리가 마주 앉았다. 양측은 AI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AI 사고가 나면 서로 알리는 통보 장치도 논의했다. 로이터는 이것이 AI 사고 전용 연락선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합의가 실제로 작동할지는 따져 볼 대목이 많다. 도시 연구원은 누가 협상에 나왔는지부터 문제 삼는다. 합의를 만든 쪽은 재무부와 무역대표부였다. 중국에서 AI 안전을 실제로 다루는 곳은 따로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사이버공간관리국, 국가안전부 등이다. 이들이 논의에 들어올지는 분명하지 않다.

과거 경험도 낙관을 어렵게 한다. 2023년에도 두 나라는 정상회담 성과로 AI 대화를 만들었다. 막상 회의가 열리자 중국은 책임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도시는 회고한다. 위기 연락선이 있어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2001년 정찰기 충돌과 2023년 정찰풍선 사건 때 기존 채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반도체 문제는 이번 AI 대화에서 빠졌다. 그리어 대표는 칩 수출 통제를 AI 대화와 묶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판매를 10곳 안팎의 기업에 허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선적된 물량은 많지 않다. 베이징이 자국 기업에 화웨이 같은 국산 칩을 쓰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칩을 풀어 주는데 중국이 받지 않는 장면은 이 경쟁의 성격을 보여준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 칩에 다시 기대는 순간 기술 자립 계획이 흔들린다고 본다. 전력 효율이 떨어져도 화웨이 어센드 칩과 토종 반도체를 키우는 쪽을 택했다. 한편 미국은 첨단 학습용 칩의 대중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식 증류 문제도 갈등을 키운다. 증류는 남의 AI 모델이 내놓은 답을 모아 자기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9월 8일 미국 국가안보국과 연방수사국, 사이버보안청이 공동 권고문을 냈다. 중국 기업 6곳이 2024년 말부터 미국 최첨단 모델을 대규모로 증류해 왔다는 내용이다. 베센트 장관은 7월에 이미 중국 모델에서 미국 모델의 흔적이 발견된다며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이 걱정하는 AI 위험은 미국과 방향이 다르다. 천이신 국가안전부장은 9월 초 이례적으로 긴 글을 냈다. 적대 세력이 딥페이크와 AI 여론 조작으로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였다. 미국의 최신 AI가 중국 핵심 정보 기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미국은 생물무기와 사이버 공격을 걱정하고, 중국은 체제 안전을 걱정한다.

이 흐름 끝에 두 개의 기술 생태계가 갈라지고 있다. 미국 쪽에는 엔비디아 칩, TSMC의 첨단 파운드리, 오픈AI와 앤트로픽 같은 대형 모델 기업이 있다. 중국 쪽에는 화웨이 어센드 칩, SMIC 공정, 딥시크와 알리바바 큐원(Qwen) 같은 공개형 모델이 있다. 딥시크는 학습 비용이 약 600만 달러로 알려진 모델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두 생태계는 서로 다른 고객을 찾아 나선다. 미국은 동맹과 자본 시장을 묶는다. 중국은 저렴한 공개형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퍼뜨린다. 기술 우위는 곧 군사력과 정보력의 우위로 이어진다. 그래서 관세처럼 숫자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타협이 어렵다.

이번 AI 대화는 경쟁을 멈추는 장치가 아니다. 사고가 났을 때 오해로 충돌이 커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비상 연락망이다. 그 연락망이 실제로 쓰이려면 다음 회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봐야 한다. 베센트 장관은 다음 회의가 두 달쯤 뒤 선전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8.4 대만과 희토류: 봉합되지 않은 두 단층

첫 번째 단층은 대만이다. 시진핑은 5월 베이징에서 대만 문제를 양국 관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올렸다. 대만 독립과 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함께할 수 없다(水火不容)는 표현도 썼다. 잘못 다루면 두 나라가 충돌하게 된다는 경고였다.

트럼프의 반응은 전례가 없었다. 5월 15일 귀국길 전용기에서 그는 대만 무기 판매를 시진핑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1982년 레이건 정부의 약속을 물었다.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6개 보증'이다. 트럼프는 1980년대는 먼 옛날이라고 답했다. 9,500마일 떨어진 곳의 전쟁은 지금 필요 없다는 말도 했다.

중국 입장에서 이 발언은 큰 양보다.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에 중국의 발언권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40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140억 달러 규모 대만 무기 판매안은 아직 백악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도시 연구원은 이 판매가 연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봤다. 베이징이 판매를 강행하면 방미를 취소하겠다고 압박했다는 보도도 있다.

그 사이 중국군의 대만 주변 훈련은 늘고 있다. 하트 국장은 트럼프가 판매 보류를 약속하면 억지력이 약해진다고 경고했다. 시진핑이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느끼면 충돌 가능성은 커진다. 미국의 공식 대만 정책은 문서상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즉흥 발언이 공식 문서만큼 무게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단층은 희토류다. 중국은 2025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희토류 수출 통제를 넓혔다. 10월 조치에는 이른바 0.1% 규정이 들어 있었다. 중국산 희토류가 0.1%만 들어가도 해외에서 만든 제품까지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부산 합의에 따라 중국은 이 새 통제를 1년간 멈췄다. 그 유예가 끝나는 날이 11월 10일이다.

유예는 철폐가 아니다. 통제의 법적 틀은 그대로 남아 있다. 중국은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는 스위치를 쥐고 있다. 실제로 8월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7월에 중국산 첨단 로봇과 전력 인버터를 금지 목록에 올렸다. 중국은 8월에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대응 조치를 내놓았다. 9월 초에는 중국 희토류 업체들이 미국행 선적 일부를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도 손에 쥘 카드가 있다. 9월 18일 트럼프는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서명했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많이 사는 나라에 최대 100%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법이다. 중국도 그 대상에 들어간다. 중국산 제품에 7.5% 관세를 권고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도 발표를 미뤄 두었다. 두 나라 모두 칼을 칼집에 넣어 둔 채 협상하고 있다.

희토류를 둘러싼 힘의 차이는 아직 크다. 미국 국방 산업과 전기차 업계는 여전히 중국산 자석에 크게 기댄다. 도시 연구원은 베이징이 희토류 통제로 트럼프 행정부를 길들였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도 때로는 그렇게 믿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희토류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무거운 협상 카드였다.

8.5 동맹과 글로벌 사우스의 시선

미중 정상회담이 마주 앉는 동안 다른 나라들도 바쁘게 움직였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9월 22일 뉴욕에서 트럼프를 만났다. 유엔총회 기간 중 약 35분 동안 진행한 회담이었다. 시진핑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하루 전이었다.

일본이 서두른 이유는 분명하다. 일본과 중국은 2025년 11월 이후 외교 관계가 얼어붙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계기였다. 중국은 이후 일본에 희토류 수출 제한을 포함한 보복 조치를 이어 왔다. 일본은 미국이 경제 이익과 대만 문제를 맞바꿀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한국도 움직였다. 정상회담 직전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렸다.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겼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활동 지지도 들어갔다. 동맹국들이 미중 담판 전에 자신들의 선을 미리 그어 둔 셈이다.

반대편에서는 중국이 연대의 폭을 넓히고 있다. 9월 12일과 13일 인도 뉴델리에서 제18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열렸다. 11개 회원국은 140개 항목의 뉴델리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란 전쟁과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많았지만 선언문에 미국이라는 말은 없었다. 시진핑의 인도 방문은 2019년 이후 처음이었다.

중국은 2027년 브릭스 의장국을 맡는다. 시진핑은 무역, AI, 금융, 공급망 협력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중국의 공개형 AI 모델과 화웨이 장비는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로 퍼지고 있다. 미국 기술 생태계 밖에서 대안을 찾는 나라들이 중국 쪽으로 기운다.

중동은 또 다른 시험대다. 이란 전쟁 동안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중국행 유조선들을 막았다. 미 재무부는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도 내비쳤다. 중국 기관이 이란에 위성 사진을 넘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의회는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흐름을 모아 보면 G2는 세계를 함께 관리하는 두 강대국 체제가 아니다. 두 나라는 서로를 견제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손을 잡는다. 동맹국은 불안해하고, 글로벌 사우스는 양쪽을 저울질한다. 워싱턴 회담이 보여준 G2는 안정된 공동 관리가 아닌 위태로운 동거에 가깝다.

8.6 2027년의 절벽과 한국의 선택

앞으로 1년 남짓한 달력을 펼쳐 보면 굵직한 날짜가 촘촘하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11월 10일 무역 휴전이 만료된다. 11월 중순에는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12월에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G20 정상회의가 이어진다. 2027년 8월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오고, 가을에는 제21차 당대회가 열린다.

베이징은 이 정상 외교 일정을 적극적으로 쓰러 한다. 하트 국장은 중국이 트럼프의 11월 APEC 방종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가 가면 시진핑은 12월 마이애미 G20에 오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 다음 만남이 잡혀 있으면 트럼프는 그 만남을 깨뜨릴 강경책을 꺼내기 어렵다. 말로 된 틀보다 달력이 미국을 더 잘 묶는 셈이다.

워싱턴 회담이 만든 것은 가드레일인가, 잠정적 휴전인가. 지금까지 드러난 사정만 놓고 보면 답은 둘 사이 어딘가에 있다. 두 나라는 서로의 레드라인을 시험하면서도 전면 충돌은 피하고 있다. 휴전 연장, 관세 조정, AI 연락망, 이어지는 정상 일정이 그 장치다. 그러나 대만, 희토류, 첨단 기술이라는 핵심 갈등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보면 지금의 미중 관계는 가드레일을 두른 잠정적 휴전에 가깝다. 한 전문가는 이를 '관리된 교착 상태'라고 불렀다. 양국이 휴전이 주는 예측 가능성을 다음 경쟁을 준비하는 데 쓰고 있다는 뜻이다. 도시 연구원도 앞으로의 관계는 정상회담보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은 이 휴전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 2025년 10월 부산에서 미중 휴전이 태어났다. 올해 5월에는 베센트 장관과 허리핑 부총리가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차례로 만났다. 한국이 미중 협의의 무대가 된 것은 외교 자산이다. 동시에 두 강대국이 한국을 편리한 장소로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대를 빌려주는 것과 각본을 쓰는 것은 다른 일이다.

한국이 이 시간 안에 할 일은 네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는 핵심 광물 공급망이다. 1년 안에 중국산 희토류와 흑연을 모두 대체할 방법은 없다. 현실적인 목표는 충격을 버틸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비축 물량을 늘리고, 호주·캐나다·베트남 등과 공동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광물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원료 조달 경로를 하나씩 점검할 때다.

둘째는 반도체 기술 격차다. 미국이 대중 통제를 강화하면 미국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수요가 한국에 몰린다. 반대로 중국은 레거시 메모리에서 물량 공세를 이어 갈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4 같은 차세대 메모리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 중국 공장의 장비 반입 허가과 현지 규제 위험도 따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의 통제와 중국 시장 사이에서 결정을 미루는 비용은 갈수록 커진다.

셋째는 안보 환경의 변화다. 트럼프는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 동맹의 안보 공약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전력은 다른 곳으로 옮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한미일 협력은 단단히 유지하되, 중국과의 대화 창구도 열어 두어야 한다. 국익을 기준으로 사안마다 판단하는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

넷째는 에너지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들여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곧바로 흔들린다. 미국산 원유와 LNG, 중앙아시아와 서아프리카 물량으로 도입선을 넓혀야 한다. 전략 비축유를 늘리고 위기 때 쓸 대응 절차도 다듬어야 한다.

두 거인의 위험한 춤은 워싱턴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휴전의 시계는 연장 기간에 따라 2027년 봄이나 가을을 향해 다시 돌아간다. 그 시계가 멈출 때 협상 조건은 지금보다 거칠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날을 미리 계산해 둔 나라와 기업이 충격을 덜 받는다. 한국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참고문헌

8.1 관련

Xinhua, 2026년 5월 17일, 〈Xi-Trump meeting charts course for constructive strategic stability in China-U.S. ties〉, 신화통신, 베이징.

중국 외교부, 2026년 5월 14일, 〈President Xi Jinping Holds Talks with U.S. President Donald J. Trump〉,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발표문, 베이징.

Zongyuan Zoe Liu, 2026년 5월 18일, 〈China and the U.S. Agreed to 'Strategic Stability' in Beijing. They Don't Define It the Same Wa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뉴욕.

David Pierson·Lily Kuo, 2026년 5월 15일, 〈Xi Pitches His Vision for Avoiding a Superpower Collision〉, The New York Times, 뉴욕.

Melanie Hart, 2026년 9월 21일, 〈What to expect at the Trump-Xi summit in Washington〉, Atlantic Council Dispatches, 워싱턴 D.C.

김경진, 2026년, 《2026 베이징: 두 거인의 위험한 춤》 제12장·제13장, KIMKJ AI Library, 서울.

8.2 관련

Rush Doshi, 2026년 9월 22일, 〈Ten Issues to Watch at the Trump-Xi Summit in Washingto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뉴욕.

CNBC, 2026년 9월 21일, 〈Trump, Xi seek trade stability and deals, but AI, tariffs and Iran loom large〉, CNBC, 뉴욕.

The New York Times·Siena College 여론조사, 2026년 9월 16일 보도(조사 기간 9월 8~13일), FOX 계열 지역방송 인용 보도.

Reuters/Ipsos, 2026년 9월 14일, 〈Trump approval up from record low, but outlook sours for Republicans〉, Reuters, 워싱턴 D.C.

김경진, 2026년, 《2026 베이징: 두 거인의 위험한 춤》 제11장, KIMKJ AI Library, 서울.

8.3 관련

Rush Doshi, 2026년 9월 22일, 앞의 글.

Melanie Hart, 2026년 9월 21일, 앞의 글.

Hokanews, 2026년 9월 24일, 〈Trump and Xi Set for Washington Talks on AI, Trade and Rare Earths〉 (Reuters 보도 인용).

Yahoo News, 2026년 9월 22일, 〈Trump-Xi White House summit: AI, tariffs, and minerals on agenda〉.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논평, 2026년 9월 22일, 데일리스포츠한국 보도.

8.4 관련

Melanie Hart, 2026년 9월 21일, 앞의 글(5월 15일 전용기 기자회견 발언 인용 포함).

Rush Doshi, 2026년 9월 22일, 앞의 글.

The National, 2026년 9월 21일, 〈Trump set for Washington summit with Xi focused on trade, Taiwan and AI〉, 아부다비.

The Washington Times, 2026년 9월 22일, 〈'Managing a stalemate': Long list of thorny topics await at Trump-Xi meeting〉, 워싱턴 D.C.

김경진, 2026년, 《2026 베이징: 두 거인의 위험한 춤》 제7장·제11장, KIMKJ AI Library, 서울.

8.5 관련

Japan Today, 2026년 9월 23일, 〈Japan's Takaichi meets with Trump ahead of U.S.-China summit〉, 도쿄.

Bloomberg, 2026년 9월 22일, 〈Trump, Takaichi Discuss China in Meeting Before Xi's US Trip〉, 뉴욕.

Asia Times, 2026년 9월 22일, 〈Takaichi scrambles to reach Trump before he sees Xi〉, 홍콩.
더센뉴스, 2026년 9월 23일, 〈미중 워싱턴 담판 개막…무역 휴전·AI 통제 향방에 한국 경제 촉각〉, 서울.
The Diplomat, 2026년 9월 23일, 〈BRICS 2026 Reveals Ambition, Contradictions, and Uncertain Futures〉.
The Researchers, 2026년 9월, 〈BRICS Summit 2026: What India Achieved at the New Delhi Meet〉.

8.6 관련

Melanie Hart, 2026년 9월 21일, 앞의 글.
Rush Doshi, 2026년 9월 22일, 앞의 글.
U.S. News & World Report, 2026년 9월 21일, 〈Trump and Xi Meet in Washington Under Shadow of AI, Trade and Rare Earth Tensions〉.
뉴스프리존, 2026년 9월 23일, 〈추석 이후 삼성 반도체·LG 배터리 운명 갈린다〉, 서울.
김경진, 2026년, 《2026 베이징: 두 거인의 위험한 춤》 맏음말, KIMKJ AI Library, 서울.
집필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워싱턴 정상회담의 공식 합의문이 나오기 전의 보도와 분석을 바탕으로 썼다. 휴전 연장 기간, 관세 인하 규모, 대만 관련 문구는 발표 뒤 확인해 고칠 필요가 있다.

2026 미중 워싱턴 정상회담 종합 보고서

ISBN |

저 자 | 김경진

펴낸이 | 김경진

펴낸곳 | 김경진 변호사 출판사

출판사등록 | 2025. 3. 10. (제2025-000015호)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91, 백일빌딩 304호

전 화 | 02-6338-1905

이메일 | kimkj008@gmail.com

© 김경진 2026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참고) 이 책의 일부 내용과 편집 과정에는 인공지능 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후원 안내

이 책을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있는 지식을 얻으셨다고 판단되시면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김경진)에 자발적 후원 부탁드립니다.

김경진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저)